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 HELLO NEXEN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

HELLO NEXEN  
Vol.70 2018년 신년호

# CONTENTS

2018 Vol. 70



## 표지 이야기

2018년 〈헬로우넥센〉의 콘셉트는 '내일을 준비하는 글로벌 No.1 넥센타이어'입니다. 신년호의 주제는 'THINK TOMORROW'입니다. 더 찬란할 넥센타이어의 '내일', 내일을 생각하는 기업 넥센타이어와 〈헬로우 넥센〉이 여러분의 2018년을 응원합니다.



## NOW ON NEXEN

**04 줌 인 넥센 1**  
EY 최우수 기업가상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 수상

**06 줌 인 넥센 2**  
노조위원장배 야구대회

**08 줌 인 넥센 3**  
넥센그룹,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결

**10 줌 인 넥센 4**  
넥센타이어 마곡 R&D 센터, 안전지원제 열어

**12 넥센 뉴스**  
넥센타이어의 이모저모

**22 베스트 파트너**  
타이어테크 보라점

**26 넥센 갤러리**  
오래 간직하고픈 2017년 나의 어느 날

**30 나눔 스토리**  
넥센인과 행복한 겨울나기



## NEXEN FINDER

**38 스페셜 테마 1**  
체인지 에이전트 출범

**42 스페셜 테마 2**  
더 좋은 결과를 위한 직장인의 생각법

**46 인터뷰**  
피아니스트 권순환

**50 넥센인 톡**  
2018년 나의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52 넥센인 생활백서**  
작심삼일 무한 루프에서 벗어나기

**56 패밀리 데이**  
창녕 생산관리팀 박상준 사우 부부의 데이트

**60 위 아 더 넥센**  
한국지역담당 마켓팅

**64 플레이 투게더**  
양산 로디안 볼링회

**68 피플 & 피플**  
칭찬합시다



## WITH NEXEN

**72 메디컬 넥센**  
겨울철 심혈관 질환 주의보

**76 진실 혹은 거짓**  
'술(Alcohol)'에 대한 진실과 오해

**80 넥센 트래블**  
눈꽃 산행 부담 없이 즐기자!

**86 집밥 넥센생**  
김밥, 어디까지 먹어봤나?

**90 넥센인 맛집**  
넥센인을 위한 바로 이 집

**92 컬처 로드**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96 넥센 싱크빅**  
나만의 한 단어

**98 Thanks**  
사우들의 사보 참여 후기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8년 신년호 통권 70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18년 1월 2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문화혁신팀 (02-3480-0369)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이시라, 한병희, 최주용, 김선아 사진 (주)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에크컴 (02-741-3377) 인쇄 (주)신우인쇄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강병중 회장 · 강호찬 사장

## EY 최우수 기업가상

##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 수상

글 정재환(문화혁신팀)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과 강호찬 사장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서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을 수상했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EY가 매년 끝없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기업가에게 수여하며,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약 6개월에 걸쳐 6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은 국내에서는 2017년 신설됐으며, 해외 역대 수상 기업으로는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와 화장품 회사 에스티 로더, 덴마크 완구 회사 레고 등이 있다.

강병중 회장 부자는 기업가 정신, 재무 성과,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혁신성, 개인적 품성 및 사회적 기여도 총 6가지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내 최초로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강병중 회장은 "1942년 설립된 넥센타이어는 7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 제조경쟁력을 바탕으로 포르쉐 및 글로벌 명차에 장착되는 등, 오늘날 140여 개국의 도로를 누비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그 원동력은 임직원 및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경영과 미래에 대처하는 혁신의 조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호찬 사장은 "강병중 회장의 상생을 기본으로 한 개척정신과 혜안이 뿌리를 다졌다"며 "앞으로는 글로벌 경영 시대에 걸맞은 전략과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sup>1)</sup>



넥센타이어 노조위원장배 야구대회

# 최강 승자를 가리다


글/사진 허기혁(노사협력팀)



2017년 넥센타이어의 야구 최강팀이 가려졌다.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를 시작으로 10일간 진행된 ‘2017 넥센타이어 노동조합위원장배 야구대회’에서 10개 팀이 기량을 겨룬 끝에 품질검사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추첨을 통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는 정련/압출 연합 대 물류, PCR 대 압연/준비/비드 연합의 2경기로 1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각 팀의 치열한 경쟁으로 달아오른 열기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대회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힌 품질검사팀과 공무팀은 4강까지 무난히 올랐다. 반면 연구/총무/기술 연합팀은 투수들의 호투를 바탕으로 4강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공무팀을 꺾는 예상 밖의 파란을 일으키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드디어 결승전이 열리는 10월 26일, 품질검사팀과 연구/총무/기술 연합팀이 맞붙었다. 공무팀을 꺾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연합팀과 공수로 탄탄한 전력을 보유한 품질검사팀의 경기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연합팀 에이스 투수의 2경기 연투로 인한 결과과, 양산의 품질검사P 소속 이기태 선발투수의 호투, 강력한 타선의 지원으로 품질검사팀이 11:1의 대승을 거두며 챔피언에 올랐다.

결승전이 끝나고 곧바로 시상식이 열렸다. 우승을 차지한 품질검사팀에 이어 연구/총무/기술 연합팀이 준우승, 공무팀과 가류팀이 공동 3위에 올랐다. MVP는 공수로 맹활약을 펼친 양산 품질검사P 소속 김동익 사우, 응원상은 압연/준비/비드 연합팀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주축했던 사내 동호회 활동에 활력이 생기고 각 팀의 결속력이 단단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 노동조합은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끈끈한 유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예정이다. 



임직원 학위취득 지원제도 마련

# 넥센그룹,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결

글 최재환(인재개발팀)




넥센그룹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자 지난해 11월 15일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정오영)와 '산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001년에 개교한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으로 고등교육법의 정규 4년제 대학교다. 현재 24개 학과에 1만 3,000명이 재학 중이며, 이미 2만 8,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저력을 갖춘 종합대학이다.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모든 수업과 시험은 100%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 진행된다. 이번 산학협력으로 넥센타이어를 비롯한 그룹 임직원이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하면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4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중열 (주)넥센 부사장, 이현중 넥센타이어 경영운영본부장, 정오영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외 양 기관 임원과 실무진이 자리했으며, 서울디지털대학교의 홍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 협약서명, 강서캠퍼스 투어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위치한 서울디지털대학교 강서캠퍼스는 아트 스튜디오, 페인팅룸, 연주실 및 합주실, 전자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미디어센터의 3D 가상 스튜디오(Virtual Studio)에서는 Full HD급 고화질과 HTML5를 적용한 최첨단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배 부사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자기계발이 필수입니다. 이에 국내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 자리 잡은 서울디지털대학교와의 협약은 당사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핵심 인재로 발돋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넥센그룹과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상생 발전을 이루어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또 이날 협약식에서는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과의 산학협력을 체결해 임직원 외 가족도 학점은행제 장학 혜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학위취득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학 혜택 외에 회사 차원의 지원제도도 함께 시행하며, 2018년 1학기부터 입학생을 모집한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는 인재 육성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넥센타이어 마곡 R&D 센터, 안전지원제 열어

글 이준엽(전략기획팀)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넥센타이어 마곡 R&D 센터 공사 현장에서 안전지원제를 열었다. 이날 안전지원제는 건설사인 쌍용건설에서 주관하고 마곡TF의 이준엽 부장과 권승규 과장이 참석했다. 쌍용건설과 감리단인 해안건축이 함께 자리해 넥센타이어 마곡 R&D 센터 건축 공사의 안전 진행을 기원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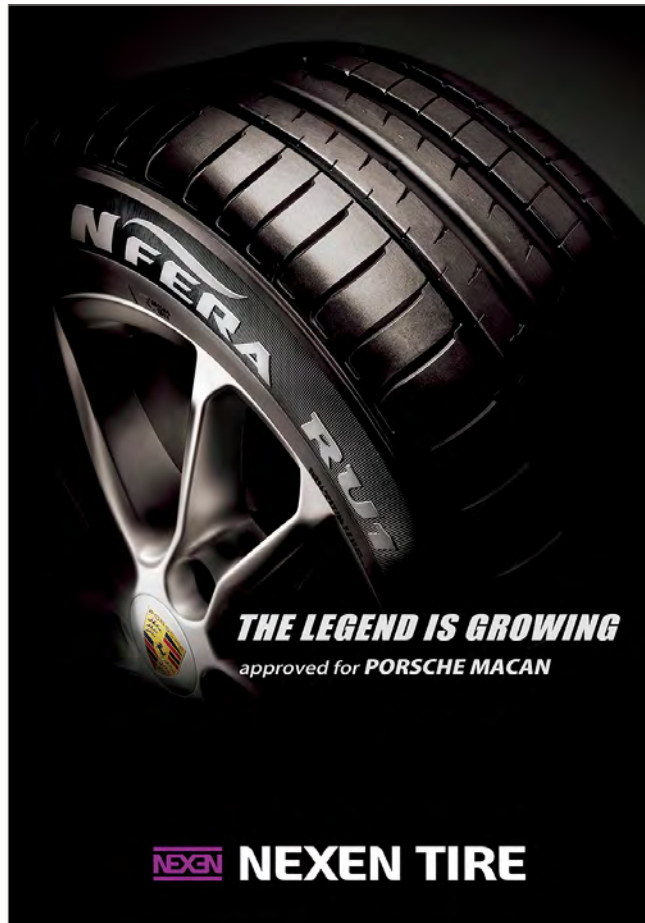
1 마곡 R&D 센터 건설 현장 모습(2017. 12 현재)  
2, 3 마곡 R&D 센터 조감도





# NEWS

## 독일 포르쉐에 신차용 타이어(OE) 공급



넥센타이어가 독일 스포츠카 제조사인 포르쉐(Porsche)의 '마칸(Macan)'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OE)로 '엔페라 RU1' 제품을 공급한다고 지난해 12월 4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포르쉐의 '카이엔' 차량에 이어, 이번에는 '마칸' 모델에 장착되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엔페라 RU1' 제품은 스포츠 드라이빙 성능에 최적화된 타이어로, 고속 주행 시 안정적인 코너링과 뛰어난 핸들링 성능을 자랑한다. 스포츠 차량의 고속 주행 시 제동 능력을 극대화하는 3D 나노 그림

기술이 적용되었고, 조향 응답 속도와 내구성을 최적화했다. 그뿐 아니라 강성이 뛰어난 아라미드 하이브리드 캡플라이(CapPLY) 코드를 활용했으며, 핸들링 안정성을 높이는 특수 비드 필러 고무 조성물이 적용되었다.

'엔페라 RU1' 제품은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일본의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본상을 수상하는 등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 9개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 있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사장은 "세계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포르쉐에 OE 타이어를 공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 OE 공급을 더욱 강화하여 넥센타이어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독일 자동차 전문지 테스트서 호평



넥센타이어의 겨울용 타이어 '윈가드 스포츠 2'와 사계절용 타이어 '엔블루 4 시즌' 제품이 독일의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우토빌트〉는 겨울용 타이어 테스트(Winter Tire Test)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총 평가에서 '추천(Recommendable)' 등급을 받은 '윈가드 스포츠 2' 제품은 눈길과 젖은 노면에서의 접지력, 핸들링, 소음 및 승차감, 연비 등의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더불어 뛰어난 연비 성능으로 '에코-마이스터 2017(Eco-Meister 2017)' 라벨을 획득하였다.

또한 〈아우토빌트〉는 사계절용 타이어 테스트(All-Season Tire Test) 결과도 밝혔다. 사계절용 타이어 테스트에는 젖은 노면, 마른 노면 및 눈길 등의 다양한 성능 테스트 항목이 포함되었다. 넥센타이어의 '엔블루 4 시즌' 타이어는 소음 부문에서 67.4데시벨(dB)을 기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눈길 핸들링과 눈길 슬라롬(지그재그 주행) 부문에서는 각각 2위를 기록해, 최종 평가에서 '만족(Satisfactory)' 등급을 받았다.

넥센타이어는 "〈아우토빌트〉 테스트 결과는 전 세계 소비자들을 위한 고성능 타이어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넥센타이어의 노력이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잇따른 수상



지난해 11월 넥센타이어가 세계 4대 디자인상인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17'과 '독일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3개 제품이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7년 제정된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다. 제품의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수상작에는 'G-Mark'를 부여해 그 우수성을 기리는 디자인상이다. '엔페라 RU1'은 현재 포르쉐 카이엔에 공급 중인 제품으로 탁월한 승차감과 뛰어난 정숙성을 자랑하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용 프리미엄 타이어다. 이번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함으로써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 디자인 어워드에서 9관왕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독일 디자인 어워드'는 정부 출연 기관인 독일디자인협회(German Design Council)에서 주최하며,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디자인상이다.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운송 및 공공디자인 부문에 '엔페라 RU1'과 '윈가드 스노우지 WH2'가 본상을, 미래 지향적 콘셉트 타이어 '브래서(Breathre)'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윈가드 스노우지 WH2'는 눈길과 얼음 노면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과 우수한 그립력을 제공하는 겨울용 타이어다. '브래서'는 최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하는 공기 정화 콘셉트 타이어다.

넥센타이어 천경우 연구개발본부장은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넥센타이어 제품이 잇따라 수상한 것은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질적 성장으로 차세대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넥센타이어의 경영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자인과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NEWS

## 재난·재해 위기 관리 국제 표준 인증 'ISO 22301' 획득



넥센타이어가 '사업 연속성 관리 시스템(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며 글로벌 인증 기관인 데크라(DEKRA)로부터 국제 표준 인증 'ISO 22301'을 획득했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ISO 22301'은 사고나 재해 등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해 업무 중단 위험에 처하더라도 업무 매뉴얼에 따라 빠른 시간 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국제 인증이다.

넥센타이어는 위기 관리 시스템인 '사업 연속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진·홍수 등 각종 재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목표 기간 내 핵심 업무를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는 생산에 차질 없이 소비자 및 완성차 업체에 안정적으로 타이어를 공급할 수 있어 제품 생산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ISO 22301 인증 획득은 종합적인 위기 관리 체계와 경영 연속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호주 멜버른 시티 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넥센타이어가 호주 A리그 축구팀 멜버른 시티 FC와 2017/18 시즌부터 세 시즌 동안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지난해 10월 11일 밝혔다.

멜버른 시티 F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의 자매팀으로, 넥센타이어가 지난해 3월 맨체스터 시티와 슬리브 파트너로 연장 계약한 후 파트너십을 맺은 시티 풋볼 그룹(City Football Group)의 두 번째 팀이다. 넥센타이어는 호주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멜버른 시티 FC와 파트너 관계를 맺음으로써 시티 풋볼 그룹과의 파트너십 플랫폼을 확장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멜버른 시티 FC의 어웨어 유니폼 및 훈련복에 기업 로고를 노출하며, 선수 이미지 및 클럽 로고를 사용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멜버른 시티 FC의 홈 경기장인 AAMI 파크 경기장 내의 A 보드 및 대형 스크린을 통해 넥센타이어의 브랜드를 노출한다.

넥센타이어는 “현지에서 인기 있는 멜버른 시티 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오세아니아 지역의 많은 축구 팬들 및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NEWS

## 유방암 인식 향상 ‘핑크리본 캠페인’ 7년 연속 후원



넥센타이어가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의 달을 맞이하여 ‘핑크리본 캠페인’에 7년 연속 공식 후원사로 참가했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예방을 위해 매년 10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공익 캠페인이다.

넥센타이어는 공식 페이스북에서 ‘유방암 자가진단 테스트’ 공유 이벤트를 진행해 디퓨저를 증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로7017’에서 진행된 ‘핑크리본 캠페인’ 행사 현장에 넥센 핑크카페를 마련해 무료 음료를 제공했으며, 모금함을 통한 기부금 전액은 대한암협회에 기부했다. 이와 함께 버스킹 공연, 메시지 월에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 행동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실시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핑크리본 캠페인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관심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NEWS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최종 라운드 영암 KIC에서 개최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최종라운드가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영암 KIC에서 개최됐다.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2017년 4월 개막전부터 총 6라운드가 진행됐으며 시즌 챔피언이 결정되는 6라운드에는 10개 클래스 200여대의 차량이 출전해 마지막까지 불꽃 튀는 순위 경쟁이 펼쳐졌다. 대회 당일에는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킷 체험 주행과 택시체험 이벤트에 10여개 동호회 600여대의 차량이 참여했고 새로운 이벤트인 슬라럼 챌린지(라바콘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지그재그 코스를 달리는 경기)가 추가됐다.

또한 레이싱 입문자를 위한 챌린지 레이스도 진행해 영암 서킷 라이선스 취득자라면 누구나 참가해 경기를 즐겼다. 참가자 전원 대상 경품 추첨이벤트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그리드워크, 레이싱 모델 포토타임, 피트스톱 챌린지, 세발자전거 레이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해 어린이 에어바운스 및 놀이방을 운영했다. 시상식 종료 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 행사도 있었다.

경기는 당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SBS스포츠 채널에서도 녹화 중계됐다.

# NEWS

'엔페라 AU7' 구매 시 최신형 스마트 밴드 증정 행사 실시



넥센타이어가 고급 세단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엔페라 AU7'의 판매 규격 확대에 따른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이벤트는 '엔페라 AU7' 제품 4개를 구매한 고객 모두에게 체지방 측정이 가능한 '인바디 스마트 밴드'를 현장에서 증정했다. 고객 과실에도 1회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는 '명품 보증서'도 함께 전달했다.

'엔페라 AU7'은 기존 제품보다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해 내마모 성능,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 저소음, 저진동 성능이 강화된 제품이다. 넥센타이어 한국지역담당 박강철 전무는 "엔페라 AU7의 판매 규격을 총 30가지로 확대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넥센타이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THINK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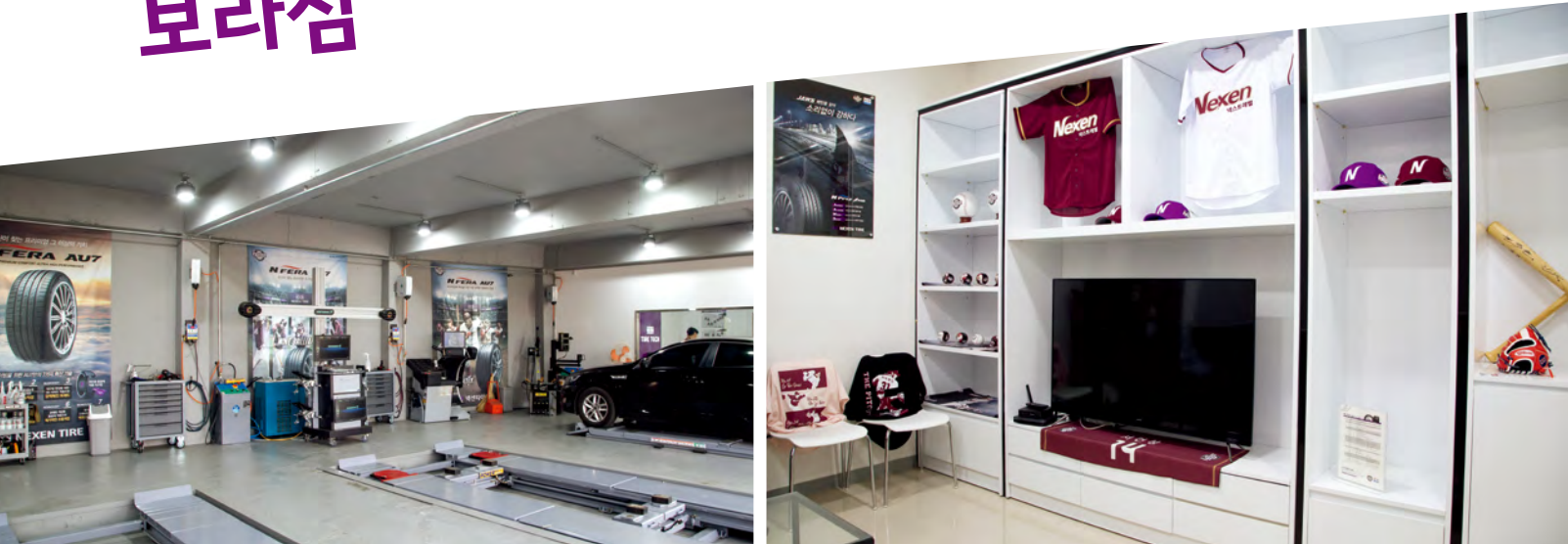




## 고품질 서비스에 앞장서는 직영 1호 타이어테크 보라점

넥센타이어 제품을 구입한 후에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서비스는 고객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타이어테크 보라점은 고객 만족을 책임지고 있다.

글 김지혜 사진 이맹호



**김정규 매니저** : 2017년 9월에 오픈한 보라점은 넥센타이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1호점입니다. 넥센타이어의 노하우를 집약하여 현장에서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연상 매니저** : 직영점만의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100% 정품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위한 응대 원칙을 세우고 고객의 불편은 바로바로 빠르게 해결합니다.



**김정규 매니저** : 다양한 타이어 제품을 확보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타이어를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 지점만의 장점이지요. 차량 상태에 따라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한 뒤, 고객의 환한 미소와 악수가 돌아올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정연상 매니저** : 고객이 방문했을 때 가게의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죠. 매장이 청결해야 신뢰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하고 가장 먼저 2층 고객대기실, 화장실, 정비 작업장, 장비를 쓸고 닦아 고객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정연상 매니저 :** 간단한 부품 교체를 위해 매장을 방문해도 차량 전체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1만~1만 5,000km 운행했을 경우, 주기적으로 타이어 위치를 교환해야 되는데 잊고 주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차량 점검 시기에 맞춰 문자를 보내 매장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정규 매니저 :** 타이어 교체 시 고객 차량에 적합한 가장 신품의 타이어를 제공합니다. 오래된 타이어는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타이어의 생산연도, 제조일자 등을 꼼꼼하게 설명해 고객이 믿고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정연상 매니저 :** 타이어 교체 고객에게는 보라점만의 4대 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이어 광택 및 휠 세척, 차량 내부 연무 소독, 엔진룸 청소, 앞유리 청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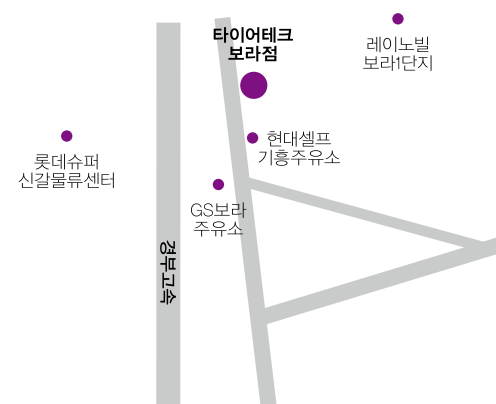
**김정규 매니저 :** 친절함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이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저희 보라점은 고객 만족도가 높아 재방문율이 높습니다.



**정연상 매니저 :**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 레벨'은 제휴 카드·제휴 서비스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무상 출장·점검 서비스가 포함되어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정규 매니저 :**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가와 최신·최고가 장비를 구비해 정확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보장된 보라점을 많이 방문해주세요!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82  
영업 09~20시(일요일 휴무)  
문의 031-328-8070





오래 간직하고픈

# 2017년 나의 어느 날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사진을 촬영하던 순간의 감정이 떠올라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거나 간직하고픈 추억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넥센인들이 컴퓨터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을 <헬로우 넥센>으로 보내왔다. 각자의 추억이 담긴 사진 속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 김수진



## (창) 정련파트 김형욱 조장

2017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창녕공장 노동조합 지부장님 이하 간부님들과 함께 비슬산 산행에 나섰습니다.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진달래꽃도, 산 아래 풍경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정상에서 외쳤던 '넥센타이어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파이팅' 구호 역시 사진을 바라보면 생생히 기억납니다.



## 제품평가계 이영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째 아들 승리가 줄넘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던 날! 여름에 줄넘기를 처음 손에 잡은 이후 매일매일 연습하더니, 대회에서 1등을 했네요. 장하고 뿌듯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승리야, 아빠는 이날을 잊지 않을게, 사랑한다."



## (창) 성형파트 진대원 대리

창녕공장 관리직은 가족처럼, 오래된 친구처럼 끈끈한 사이입니다. 생일이면 파티를 여는 것은 물론, 경조사도 빠지지 않고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지원하죠. 많은 사진 중에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에서 찍은 것을 골랐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봐서 들뜨기도 했고, 케이블카 안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로 해상 노래방도 열었던 즐거운 순간입니다.



## 전기파트 박기홍 조장

공무팀 '세븐둥이(77년생 7명이 만든 모임)'의 20년 근속 기념 세부 가족 여행 사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7명이 다녔는데, 이제는 18명이 북적대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었네요. 두 친구는 입사 연도가 달라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번 여행은 꼭 같이 가자! 항상 서로 이해하며 변치 않는 우정을 자랑하는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777 파이팅!



## IOP팀 탁세원 주임연구원

업무에 지쳐가던 지난해 여름, 친구의 제안으로 '사이의 SWAG 물쇼 콘서트'를 관람했던 사진입니다.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 진정한 멋진 남자 싸이를 통해 열정이란 무엇인지 새로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저도 모든 일에 열정을 가득 담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하루였습다. 올해 열릴 싸이 콘서트, 또 가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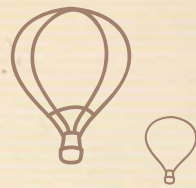
**(창) 생산관리팀 김건호**

지난가을 서울에서 가족들이 내려와 대구에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 서문시장 야시장에서 보낸 순간은 정말 최고였어요. 넥센타이어 사우 여러분도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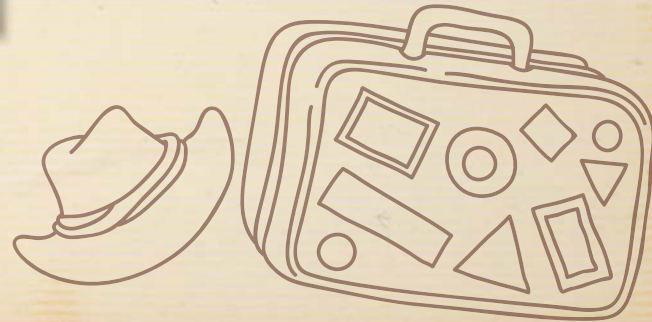
**(창) 지원팀 박기덕**

지난해 팀원들끼리 산에 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산등성이와 맑은 공기! 지금은 각자 흩어져 남은 건 함께했던 사진뿐이지만, 모두들 언제나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팀 김주엽 대리**

장인어르신 회갑 기념으로 따뜻한 하와이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저희도 좋은 추억 쌓고 왔네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겸사 겸사 리마인드 여행이 되어 행복했습니다.



**성과혁신팀 황익진 팀장**

서울 고척동에 넥센 히어로즈가 있다면 방배동엔 넥센 로디 안즈가 있습니다. 11월 첫 함박눈이 반가워 타이어맨들이 모여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올겨울 윈터 타이어 대박나래!



**제품디자인팀 조진현 주임연구원**

입사 4개월 차, 모든 것이 새롭던 2017년 10월의 어느 날, 부산 토박이 김태년 과장님이 부산 초짜인 제게 자전거로 부산을 알려주었습니다. 멋진 요트가 많았던 부산요트경기장, 야외 영화 상영 중이던 영화의 전당, 광안대교가 보이는 영화의 거리, 수많은 커플이 있던 더베이 101, 처음으로 바닷장어를 먹었던 광안리. 2018년에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겠습니다.



**OE영업소속 비밀요원**

단풍이 아름답던 지난해 가을, OE 아재들이 화식 2차로 핫 플레이스 경리단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캐주얼 데이'라 한껏 멋지게 차려입고, 힙스터처럼 루프톱 바에 가서 맥주도 마셨어요. 아재들의 경리단길 나들이 어떨까요? 신나 보이죠?



**컴파운드개발2팀 박정현 주임연구원**

동기들과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요. 동기들끼리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모 형 사랑해.



배추 수확부터 김장까지

# 넥센인과 행복한 겨울나기

서울사무소 사우들이 강원도에서 직접 수확한 배추를 양산의 임직원들이 건네받았다.  
싱싱한 배추를 김장 양념으로 정성껏 버무리고 꼼꼼히 봉했다. 양산, 부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은 김장김치뿐 아니라 넥센인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받았을 것이다.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 배추를 우리 품 안에

지난해 11월 6일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보라색 조끼를 입은 넥센인들이 등장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두 시간여를 달려 횡성군 노구소 마을에 도착한 이들은 신입사원과 체인지 에이전트(CA) 위원으로 구성된 'N젤 위더스'다. N젤 위더스란 넥센타이어가 사회공헌활동에 나설 때마다 사용하는 이름으로 NEXEN의 N에 천사를 뜻하는 '엔젤'을 결합시키고 '함께하자'라는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배추밭에 모인 17명의 사우들은 토시와 장갑까지 아무지게 장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확 활동에 참여했다. 목표는 3,305㎡(1,000평) 규모의 배추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배추를 수확하는 것. 대략 1만 포기의 배추가 이 밭에서 생산된다.



행사를 기획한 문화혁신팀 김민영 대리는 “2011년 1사1촌 결연 후 매년 노구소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요. 신입사원들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께 넥센타이어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라고 말했다. 사우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성실히 작업에 임했다. 배추의 곁잎을 찢히고 아래 줄기를 자





“매년 변함없이  
봉사활동을  
지속해주시는  
넥센타이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른 다음 차례차례 상자에 넣어 옮기는 일은 얼핏 쉬운 듯하지만 낯선 작업이다. 입사 1년 차 전략마케팅팀 권근희 사원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했지만 조금씩 요령이 생기고 있어요. 동료들과 함께하니 남은 작업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찬수 이장은 넥센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직접 새참을 챙겼다. “오늘 수확한 배추는 저장고에 보관하거나 공장에서 절인 뒤 김장용으로 전국에 판매됩니다. 매년 변함없이 봉사활동을 지속해주시는 넥센타이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든든합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고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했다. 마을에서 준비한 삼겹살과 쌈배추가 한 상 가득이다. 배가 부르자 더욱 의욕이 넘치는지 모두들 다시 배추 수확에 열을 올렸다. 넥센타이어에서 새롭게 출범한 CA 위원 자격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해외영업2팀 한경준 대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회사를 위해서 나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CA에 신청해 선발됐는데,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가볍습니다”라고 말했다.





### 맛있는 김장으로 재탄생

노구소 마을 봉사활동이 끝나고 며칠 후, N젤 위더스가 직접 수확한 배추가 양산 본사로 옮겨졌다. 벡센타이어가 배추를 구입해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이 배추로 김장을 담가 경남 지역 소외 계층과 나누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11월 23일 양산 공설운동장에 김장 준비가 완료됐다. ‘겨울애 따뜻한 김장 나눔 행사’라는 타이틀로 벡센타이어가 모여 김장을 담그기로 한 날이다. 이를 위해 양산에서 근무하는 120명의 임직원과 강호찬 사장이 함께했다. 양관우 양산시복지재단 본부장, 나동연 양산시장도 자리해 벡센타이어에 고마움을 표했다. 사우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작업대에서 열심히 김치를 버무렸다. 기업문화팀 송준우 대리는 “앞으로도 매년 김장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포기 수도 점점 늘려 더 많은 이웃과 나눌 계획입니다. 양산뿐 아니라 창녕과 서울, 각 사업장에서 도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영관리팀 정성훈 사원은 “많은 인원이 모여 조를 짜고 분업을 하니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받아가신 시설 관계자들의 감사하다는 인사에 보람도 느낄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즐거운 하루였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네 시간여 끝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지은 후, 완성된 김장김치는 벡센타이어가 별도로 준비한 고구마 상자와 함께 부산 지역 평화의 집을 비롯한 장애인 재활시설과 양산 읍면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㉞





## 내일을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넥센타이어의 미래가 됩니다.  
빛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야 합니다.  
2018년의 첫 번째 <헬로우 넥센>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더욱 에너지 넘치는  
내일로 나아가도록  
밀도 높은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글로벌 No.1을 향한 넥센타이어의 발걸음에  
<헬로우 넥센>이 함께합니다.

# THINK TOMORROW





체인지 에이전트 출범

# 행복한 우리의 일터, 넥센!

넥센타이어의 지속 성장과 구성원의 행복 추구를 위한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 이하 CA)가 지난해 9월 결성됐다. 2018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CA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소개한다.

글 김종왕(문화혁신팀)



최근 각 기업들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직되고 수직적인 기존의 조직 문화를 탈피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도 ‘2025년 글로벌 Top 10 타이어 회사’로 성장하고자 조직의 혁신을 추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넥센타이어는 혁신을 향한 성장 에너지 ‘체인지 에이전트’를 기획했다. CA는 넥센의 핵심 가치인 3C(Creativity(창의), Challenge(도전), Collaboration(협력))를 기준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혁신 활동을 전개하는 캠페인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최고의 가치, 최선의 만족으로 성과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 CA의 목표다.

CA의 핵심 과제는 ▲비전 전파 ▲컬처 변화 ▲GWP 본격화(Great Work Place, 신뢰와 자부심, 재미가 있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각 사업장별 혁신 활동 전개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조직 문화 변혁을 추구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변화와 혁신, 행복한 일터, 미래의 인재’라는 주제로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 넥센만의 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해 ‘우리의 행복한 일터, 넥센’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넥센의 조직 문화 키워드로 ‘Change, Communication, GWP’를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CA는 ‘소통과 열린 넥센 컬처’ 창출 활동에 앞장선다. 비전 전파, 미션 및 핵심 가치 정립, 회의 및 보고 문화 개선 활동, 마곡 아이디어 뱅크, GWP 다양화 방안, 부서 간 혁신 활동 및 개선점 도출, CA 리더십 및 역량 강화 등 새로운 시도 역시 계속된다.

CA로 선정된 넥센인들은 양산, 창녕, 서울사무소에 분산돼 월 전체 모임 1회, 각 사업장별 모임 1회, 총 2회에 걸쳐 모임을 갖는다. 여기에 반기 1회 전체 워크숍을 통해 대표이사 및 경영진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유한다.

### CA의 핵심 과제

비전 전파

컬처 변화

GWP 본격화

각 사업장별  
혁신 활동 전개

### CA 목적 및 배경

1. CA 육성 및 운영을 통한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나감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 마련

2. ‘행복한 우리의 일터, 넥센’의 실현 –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구성원의 행복 추구(열린 조직 문화 구축)

3. CA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포용력을 배양하고, 미래에 넥센타이어를 이끌어 나갈 ‘스마트 리더’를 육성하고자 함





CA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약 3주간 1기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변화 추구 의지 ▲적극적인 태도 ▲솔선수범 ▲긍정적인 마음가짐 ▲반듯한 사고 ▲소통을 6대 기준으로 선발해 양산, 창녕, 서울 3개 사업장에서 30명의 CA 위원이 탄생했다.

최종 선발된 CA 1기는 활동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변화와 혁신’으로 벡센만의 강한 조직 문화 구축을 다짐하는 Kick-off 미팅을 10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벡센강남타워 엔톡홀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호찬 벡센타이어 대표이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며 자긍심을 부여하고, 향후 활발한 CA 활동을 당부했다. 더불어 현재의 벡센 조직 문화와 CA에 바라는 점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CA 1기로 선발된 영업기획팀 이지혜 대리는 “조직 문화 혁신 및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CA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조직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성연구팀 조혜영 사원 또한 “선발되어 매우 기쁩니다”라며 “회사에서 업무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좋은 기업 문화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도록,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성과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  
 CA의 목표다.



족하는 선진 문화, 투명한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 만큼 벡센타이어의 변화를 주도해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습니다. 항상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CA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부지게 말했다.

앞으로 CA가 성취할 활동에 대해 모든 벡센인들이 따뜻한 관심과 격려 보내줄 것을 당부드린다. ㉞

### 강호찬 사장의 격려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30명의 CA위원들이 앞으로 30~40년 회사를 이끌어갈 중추 역할을 할 것입니다.

CA는 말 그대로 Change, 즉 단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내부로부터의 ‘진정한 변화’를 말합니다.

타이어는 서비스업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단순한 제조업의 부산물로만 바라보면 오래갈 수 없습니다.

외부 고객, 내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함께 꿈꾸고, 그 ‘꿈을 만들어가는 벡센의 조직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회사로 성장 중인 넥센타이어가 조금 더 나은 회사가 되기 위해 개개인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혼자 자책하지 말고 동료와 생각을 나눠보자.

글 남궁석(칼럼니스트)

### 혼자보다 여럿이 낫다, 그러나 ...

흔히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업적은 특출한 개인의 천재적 두뇌 활동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런가? 사실 기술의 발전이나 세상을 바꾼 기업은 혼자보다는 둘 이상이 만나 창립한 경우가 더 많다. 가령 애플 창업에는 두 명의 스티브, 즉 영업맨 잡스와 엔지니어 워즈니악이 필요했다. 'HP'로 불리는 거대 기업은 '휴렛'과 '팩커드'가 만나 만들어졌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복수의 두뇌 둘 이상이 만나 1+1=2 이상의 시너지를 일으킨 일은 허다하다. 일을 시작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이것이 합쳐져 인류 문명에 남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 분명히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대뇌의 연산력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단지 여러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가? 직장에서 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인생의 상당 부분을 허비해본 사람이라면 '천만에!'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 명이 모여서 새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신화 속 전설처럼 생각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이 못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과연 어떻게 '여러 명이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 참석자들의 균등한 지식 정보 수준

시간 낭비 없이 여러 명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뭔가 창조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지식 수준이 평준화될 필요가 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하는 회의는 강의가 돼버린다. 어떤 업무를 수십 년 동안 수행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한 명과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자 여러 명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생산적인 토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 내지는 지시밖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럿이 모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생산적인 토의가 되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이 가진 정보 수준을 맞추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





다. 특정 문제에 대해 회의 한다면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할 것인지, 논의할 주요 안건을 다루는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참석자는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의견 교환인가, 일방적 지시인가

엄연히 위계질서와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직장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교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위사람은 어느 정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적인 성향이 있다. 어떤 조직이든 상사 의견에 반대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가 심할수록 회의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시간이 된다. 지시를 할 거라면 여러 사람이 만나 회의를 할 필요도 없다. 이메일로 지시 내용을 보내면 그만이다. 반대로 상급자가 실무자에게 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상황이라면 실무자는 결국 상급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도록 길들여지며, 두 사람의 생각이 만나 생기는 시너지 같은 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만다.



#### 같지만 달라야 한다

지식 수준이 유사하고, 위계질서가 없는 동료끼리 모여 있으면 뭔가 혁신적인 발상이 나올까?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의 정도가 비슷하다'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특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가령 팀플레이로 게임을 할 때 모든 참가 인원이 한 종류의 캐릭터만 선택하면 게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럿이 만나 시너지가 생기기 위한 선결 조건은 참가자 각자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을 조직하는 사람이 구성원을 선택할 때부터 각각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

#### 답은 우리 안에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훨씬 낫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록 그 가운데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문제는 의견 사이에서 결론을 도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다. 대립된 의견이 있을 때 하나로 통합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다수결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다수결의 원칙만큼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의견 결정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실제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이전의 실수에서 배운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아이디어든 혼자 생각한 아이디어든 간에 실행에 들어간 아이디어의 상당수는 당연히(!) 실패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대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언젠가는 결국 실패를 딛고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패로부터 성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만약 두 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공통적인 요인과 달라진 요인을 찾아내 '하나의 실패 요인'을 도출 필요가 있다. 물론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길 꺼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제3자의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㉞





## 피아니스트 권순환

# 내 일과 내일 사이

피아니스트 권순환은 대중들에게 가수 보아의 오빠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언제나 '내일'을 고민하고 '내 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의 일은 클래식 매력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오래전부터 고민했고 애써온 덕에 그에게 내일은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새로운 무대다.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람

내일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답은 내 일에서 찾아야 한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이 그 바람직한 예가 될 듯하다.

권순환은 피아니스트이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피아노과 외래 교수, 스튜디오 네오뮤지카의 대표다. 직접 연주한 클래식 음반을 내고, 크고 작은 규모의 토크 콘서트를 수십 회 진행해왔다. 클래식 음악에 미술을 접목한 이야기로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를, 태교에 좋은 클래식을 추천한 〈아가야 지금 이 음악 듣고 있니?〉등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팟캐스트 방송 제작자가 됐다. 이 모든 작업이 먼 과거로부터 흘러온 클래식 음악과 현재의 대중 사이 거리를 좁히기 위한 권순환의 일이다. 그와 만나기로 한 시간은 이른 오전. 그의 스튜디오에 도착해 인사를 건네고 마주 앉았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했냐고 묻자 “팟캐스트 한 회차를 편집해 업로드했고 운동 후 샤워까지 마친 뒤 인터뷰 준비를 했어요”라고 답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부지런함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 한 일이라는 팟캐스트가 바로 요즘 권 교수가 가장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는 일이다. 회당 10분 남짓,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권순환의 달달한 클래식’을 통해 그는 클래식 곡이 무척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 곡을 알아도 제대로 알자고 청취자에게 제안한다. 작품을 선정해 그 곡의 탄생 배경이나 시대적 상황, 작곡가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익숙한 음악이었더라도 새롭게 느껴진다.





‘나의 내일’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회 기획부터 대본 작성, 녹음, 편집까지 전부 직접 하는데 모든 과정이 재밌어요. 청취자 반응도 좋고요. 일주일에 한 편씩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 2~3일에 한 편, 하루에 한 편으로 찾아진 이유죠.”

권 교수는 졸곧 ‘이지클래식’을 지향하며 연주와 해설을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왔다. 더 나아가 ‘미술관에 간 피아니스트’라는 콘셉트로 연주곡과 어울리는 명화를 소개하거나 미술사를 들려주기도 했다. 클래식과 관련해 상당한 분량의 이야깃거리가 그에게 축적돼 있다. 그럼에도 정확한 대본을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공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성취감으로 더 단단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준비에 드는 시간이 만만치 않지만 지치지 않고 꾸준할 수 있는 비결이다. 덕분에 청취자들은 날마다 귀가 즐겁다.

### 내일을 생각하는 방식

그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기마다 수백 명이 권 교수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접한다. “교양 수업을 하다 보면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얻어가려 애쓰는 학생들이 눈에 띄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가르치는 사람도 즐겁고, 클래식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하게 돼요. 지적 허영심도 채워줘야 하고 공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죠.” 지적 허영심, 문화적 허세. 그가 대중을 상대로 클래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종종 쓰는 표현이다. 가벼워 보이지만 솔깃할 만하다. 일단 들어보면 클래식에 흠뻑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포돼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어깨 펴고 예술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하면 흥미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술에 대한 식견이 넓어진다는 건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도 좋은 일이고요.” 내일의 클래식 애호가들이 그의 강의실에서 탄생한다. 그가 별이는 많은 일들은 모두 클래식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맞는 길인지 ‘내일’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를 채찍질한다.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클래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루트도 계속 바뀌어요. 공부를 손에서 놓을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음악가로서 잘 살고 있나 하는 질문도 스스로 하게 돼요. ‘나의 내일’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 교수가 생각하는 내일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20년 후를 상상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제 안에 쌓인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내일도 미래에도 고민할 거예요. 매일 성장하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나이 들수록 더 멋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고요.” 반대로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본다면? “10여 년 전 유학과 한국 활동 중 후자를 택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에요. 요즘처럼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훨씬 즐겁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왔어요. 과거 제 연주 영상을 보면 젊고 피아노도 잘 치지만 그때로 돌아가겠느냐고 물으면 싫다고 할 정도예요. 미래의 저도 오늘을 추억해본다면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⑩





# 2018년 나의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2017년 11월 7일~10일, 총 141명 참여

2018년 무술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신년을 2달 앞둔 넥센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떤 새해 목표를 계획하고 있나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도 이야기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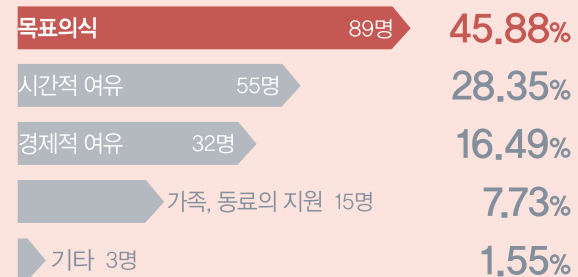
정리 김수진

**Q** 2018년 새해를 맞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 ◆ 글로벌 마곡연구소를 위한 바탕 작업의 성공적 완수! • 천경우
- ◆ 소개팅. 희망 사항은 반려자?? • 탁세원
- ◆ 업무 적응 및 튼튼해지기 • 이수경

**Q** 새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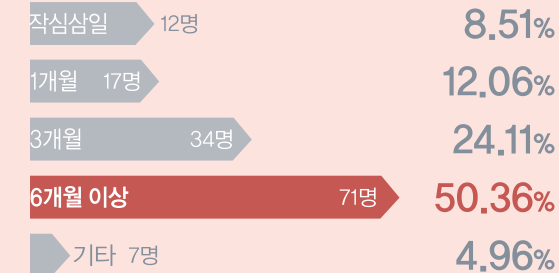
- ◆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 김정훈

**Q** 2017년을 되돌아볼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 ◆ 일에 찌들어 살아서 내 주변,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네요. • 박창근
- ◆ 딸과 놀아주기(피곤하다, 회사 일 등 여러 가지 핑계 댄 게 미안하다) • 박기홍

**Q** 새해 목표의 예상 실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 2018년 쭈욱~ 가겠습니다 • 김학중
- ◆ 다이어트와 재테크는 평생을 두고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영화

**Q** 2018년의 나 자신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 ◆ 내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니 열심히 운동합시다! • 김광수
- ◆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 한 살이라도 어릴때 해내자! • 박세정
- ◆ 잘 살자!! 나는 소중해!! • 김석원
- ◆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 송창윤
- ◆ 내일이 아닌 지금이 내일의 지금을 만들 수 있다. 움직여라 바로 지금. • 정준욱

**Q** 포기하지 않고 새해 목표를 지속하기 위한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 ◆ 처음엔 짧지만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습관으로 길러지도록 몸에 익힙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몸이 먼저 행동할 수 있도록 말이죠! • 김규명
- ◆ 돈을 투자해야 한다. 돈으로 의지를 사는 것이다. 돈이 가까워서라도 실천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 임희선
- ◆ 입사 당시 사진과 거울 속 부풀어진 내 모습을 꾸준히 비교해본다. • 임영민
- ◆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난 최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목표가 흔들릴 때마다 상황에 맞춰 자기 최면을 건다. • 최재석
- ◆ 모든 일을 일단 집 밖에 나가서 시작한다. • 윤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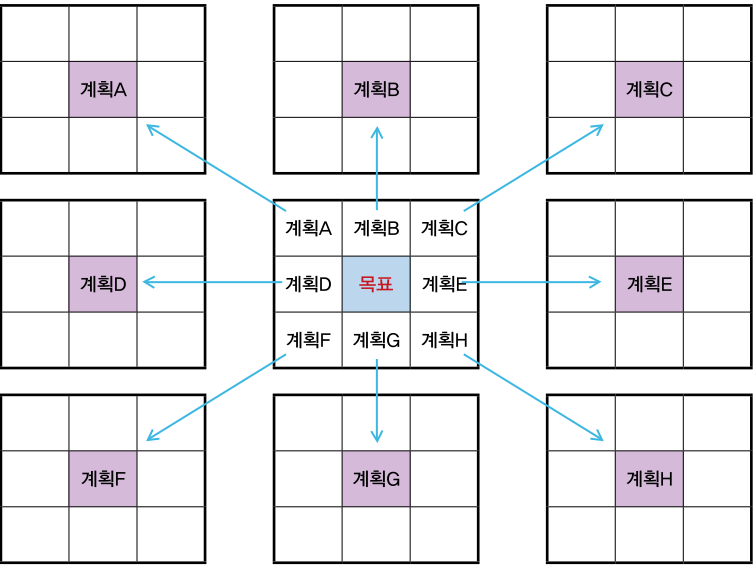


# 작심삼일

## 무한 루프에서 벗어나기

다이어트, 공부, 독서, 금연... 아침차게 세우는 신년 계획들. 그러나 이어지는 것은 작심삼일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다. 새해부터는 내일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결심에서 작심삼일로 이어지는 슬픈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글 우용표(더 코칭 & 컴퍼니 대표)



만다라트 (MANDALA-ART) 발상법

### 계획을 유연하게 잡자

학창 시절 방학 생활 계획표를 떠올려보자. 아침 7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점심 먹자마자 공부하고 자정까지 공부하겠다는 온통 공부로 가득 찼었다. 그 계획 제대로 지켜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대답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밤늦게 잠들고 다음 날 아침 10~11시쯤 일어나 TV를 보거나 게임을 했을 것이다. 첫날부터 지켜지지 않은 계획표가 방학 끝날 때까지 지켜질 리 만무하다.

다짐하고 계획할 때 중요한 것은 ‘느슨함’이다. 너무 오밀조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잡으면 조금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전체의 다짐이 무너지고 만다. 적당한 유연함이 가능하도록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보자. 출근부터 퇴근까지 10분 단위로 해야 할 업무를 정하고 점검하는 ‘완벽한 다짐’을 했다면, 그 다짐은 과연 얼마나 갈까? 아마도 완벽한 방학 생활 계획표와 비슷한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의 굳은 다짐과 완벽한 계획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1분이라도 어긋나면 ‘또 잘 안 되네’라는 부정적인 마음만 자리 잡게 된다. 차라리 1시간 단위 또는 여유 있게 3~4시간 안에 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정해놓는다면, 하나씩 업무를 처리하면서 완성된 과제에 대해 성취감도 느끼고 계획을 달성하는 즐거움도 덩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계획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목표 달성법의 유래가 된 ‘만다라트 (MANDALA-ART) 발상법’이 주목받고 있다. 만다라트는 일본 디자이너 이마이즈미 히로야키(今泉浩晃)가 개발한 발상법으로, ‘목적을 달성한다(MANDDA+LA)’와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MANDAL+ART)’을 합친 용어다. 작성법은 간단하다. 정사각형 9개로 이루어진 표를 그린 뒤 가운데 칸에 중심 목표를 써놓고 나머지 8칸에 세부 목표를 채워 넣으면



된다. 세부 목표는 다시 각각의 영역에 적고,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작성한다. 작성을 마치면 64개(8×8)의 행동 계획이 나온다.

### 작은 성공 체험부터 시작하자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좌절감’이다.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였어’, ‘역시 작심삼일인가 봐’ 등의 좌절감은 끊임없이 나의 다짐을 약하게 하고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한다. 좌절감을 물리칠 좋은 방법은 바로 ‘성공 체험’이다. 우선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운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목표를 세워보는 식으로 연속적인 성공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하루에 3시간씩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했다면 하루이틀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 부서 회식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부를 못 하면 좌절하게 된다. 접근 방법을 달리해보자. ‘하루 10분만 업무 관련 어학·전문 지식 공부를 해보자’고 다짐해보는 것이다. 하루 10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매일 10분의 시간을 들이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시간을 30분, 1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학원·헬스의 경우에도 ‘잠깐 들르기라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해보자.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언가를 다짐했다면 그 다짐의 실천을 가장 쉬운 것부터 최종적인 실행까지 몇 단계로 나누어보도록 하자.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실행해나가면 어느새 최종적인 실행까지 이루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스스로에게 성과와 보상을 마련해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은 외부로 알리지 않는 이상 혼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 그렇기에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 결과 역시 자신만 알게 된다. 스스로의 절제력이 강하거나 다짐이 굳건하다면 다짐한 바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납득하고 만다. 사람은 무언가 일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존재다. 이를 응용해보자. 작은 다짐이라도 그 다짐이 실행된다면 스스로에게 상을 주도록 하자. 작은 다짐에는 간단한 보상을, 큰 다짐에는 큰 보상을 주는 식으로 계획해보면 좋다.

이번 작업을 오늘 안에 끝내면 평소 봐두었던 구두를 사야겠다고 다짐한다면 어떨까? 이제 작업은 일이라기보다 나에게 구두를 선물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 구두를 얻고 싶다면?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어학 공부를 해서 테스트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오면 휴가를 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다짐한다면? 마찬가지로. 어학 공부는 곧 달콤한 여행을 위한 중간 과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곧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과정이 되도록 해보자.

아무도 알아주거나 확인하지 않지만 혼자만의 계획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이 더욱 즐거워질 수 있다.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어려운 과정은 더 보람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다짐한 대로 실천했을 때의 자신을 상상해보자. 어학 공부를 시작한다면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하고 외국인과 대화하는 모습, 어학 점수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모습, 남들이 부러워하는 몸매를 가지게 된 모습 등을 상상해볼 수 있다. 다짐을 실천하는 최고의 보상이 바로 ‘이루어낸 자신의 모습’ 아니겠는가. 다짐을 실천하는 과정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응원해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㉞







창녕 생산관리팀 박상준 사우 부부

##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화끈하게 10년째 사랑 중

한창 말이 늘기 시작한 4살 첫째 딸,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생후 7개월인 둘째 딸. 아이들 위주가 아닌 오직 둘만을 위한 데이트를 즐겨본 적이 언제였던가. <헬로우 넥센>을 통해 창녕 생산관리팀 박상준 사우가 아내와 모처럼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다. 키즈카페가 아닌 분위기 좋은 디저트카페에서, 아이들과 함께라면 엄두도 못 냈을 VR 데이트까지. 10년 전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던 그때 그 두근두근 콩콩했던 연애의 시작처럼. 달콤하고 화끈한 둘만의 데이트!

글 김혜진 사진 이맹호

### 달콤한 게 좋아!

대구 동성로가 유난히 소란스럽고 변화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디저트카페에서 박상준 사우 부부를 만났다. “예전에 연애할 땐 동성로에 되게 자주 왔는데 아이들 없이 둘만 데이트하러 온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라고 말하는 부부의 얼굴이 밝다.

평소에도 빵과 디저트를 좋아한다는 아내 문서윤 씨는 삼색 마카롱과 독특한 비주얼의 몽블랑을 주문했다. 음료는 카페의 시그니처 음료인 도트라테와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때 꼭 필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상준 씨가 “아내가 빵을 정말 좋아해요. 완전 빵순이예요”라며 장난스럽게 놀린다. 서운 씨도 웃으며 순순히 인정한다.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근처에 너무 맛있는 빵집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참새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당신도 좋아하잖아!” 귀엽게 투닥거리는 부부에게 꼭 대학생 커플 같다고 말하자 “사실 대학생 때부터 사귀 오래된 커플”이라고 한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서로의 친구들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부는 웃는 모습마저 닮아 보인다.







### 환상의 팀워크로, 좀비 퇴치!

달콤한 디저트로 기운을 충전하고 나선 두 번째 데이트 코스는 가상현실 게임인 VR 체험장.

상준 씨는 평소에도 VR에 관심이 많아 집에서든 휴대폰에 연결하여 플레이했다고 한다.

집에서만 해봤지 본격적으로 게임장에 설치된 VR은 처음이라며 신나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다.

“여보, VR 해보고 재미있으면 우리도 살까?” 은근슬쩍 물어오는 상준 씨의 질문에, 서운 씨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한다. 귀여운 커플이다.

VR 게임장으로 들어서니 외국인 관광객부터 친구들끼리 온 단체, 커플들까지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는 손님들로 가득해 요즘 떠오르는 놀이 문화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실감나는 좀비폐와의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룸부터 실제 대구 도심을 서킷으로 달리는 VR 레이싱, 360도로 움직이는 공포 극한 체험, 1인씩 이용할 수 있는 과일 자르기 게임까지 종류는 너무 많았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장비를 장착하고 잠시 설명을 들은 뒤 본격적인 게임 즐기기 시작!

VR 에그제큐에 앉아 롤러코스터 체험을 한 후 무서운 것 말고 재미있는 걸 하자며 찾은 과일 자르기 게임에서 서운 씨가 뜻밖의 실력 발휘를 하자, 상준 씨는 아내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으며 밝게 웃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호하게 VR 게임을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서운 씨는 “이거 다이어트도 될 것 같고 재미있네”라며 함께 웃었다.

### 서로에게 쌓인 시간만큼 사이좋은 부부

좋은 친구였던 그들은 오랜 연인이었고, 사이좋은 부부를 거쳐 두 딸을 둔 부모가 되었다. 부부는 둘 사이에 쌓인 10년이라는 시간만큼이나 서로에 대해 잘 안다. 아내 문서운 씨는 남편 박상준 씨가 평소에도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좋은 남편이라고 말한다.

상준 씨는 육아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늘 미안하다며 자기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시종일관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배려하는 부부를 보며, 사랑을 시작할 때의 설렘만큼이나 오랜 세월 쌓인 애정의 무게도 아름다운 것임을 새삼 느꼈다.

오랜만에 아이들 없이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니 감회가 새롭지만,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못지않게 즐겁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박상준 사우 부부. 그 어떤 디저트보다 달콤한 가족이다. <sup>09</sup>





한국지역담당 마컴팀

# 넥센타이어의 얼굴을 알리다

타이어, 스포츠, 도전, 젊음,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야말로 명확하다.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리는 '넥센타이어'라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한국지역담당 마컴팀을 만났다.

글 김지혜 사진 이맹호



## 때론 새롭게, 다르게

마컴팀은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의 줄임말로, 그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방문했던 영화관에서 그들과 마주했다. 입구 한쪽에 차려진 넥센타이어 홍보관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포토존 앞에서 가족, 친구, 연인들의 인증샷 이벤트가 펼쳐진 것이다. 이날 처음으로 마컴팀을 만났다. 이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고객을 만나 넥센타이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일을 한다. 쉽게 말해 넥센타이어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홍보 및 프로모션은 고객의 관심도가 가장 큰 부분이에요.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현장에서 넥센타이어의 마케팅이 강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마컴팀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광고를 비롯해 프로모션, 마케팅 및 홍보물 기획 등 여러 일을 담당한다. 스포츠 마케팅 활동은 참 넥센타이어답다. 야구, 레이싱, 골프 등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자신만의 색깔을 잊지 않는 브랜딩, 타깃을 고려한 마케팅에 중점을 맞춘다. 소비자가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를 사랑하게 하는 게 마컴팀의 몫이다.





“우리가 만든 행사, 캠페인, 광고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때, 야구장, 레이싱 서킷, 필드에서 ‘빅센타이어’ 로고를 가슴에 달고 달리는 선수들을 볼 때, 응원하고 환호하는 고객들을 볼 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옴을 느낍니다.”

뜨거웠던 스포츠 시즌이 끝나고 마컴팀은 현재 신제품과 시즌 프로모션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어떤 마케팅을 전개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업무를 하면서도 항상 사람들의 대중적 기호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 구매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연구한다.

나에게  
마컴팀이란?

**이석훈 팀장**  
숨겨진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

**김남희 대리**  
회사의 간판이자 대리인.

“다른 팀에 비해서 시끄러울 수 있지만 저희는 서로의 자리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팀원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마련이죠. 틀 안에 갇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 행사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새로운 것을 시행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능력으로 뚝뚝 뭉치다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빅센타이어에서 젊은 팀에 속하는 마컴팀은 능력을 배가시킬 프로 정신과 팀워크를 자랑한다.

“외부 행사를 나가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팀원들이 잘 도와줘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뿜어내는 능력이 워낙 다양해 팀원 서로의 장점을 꼽아보기로 했다. 조성민 대리와 김현진 사원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김남희 대리의 계획성을 말했다. 김남희 대리는 조성민 대리의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을 꼽았으며, 입사 동기인 이태섭 사원과 박남도 사원은 상황 대처 능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서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석훈 팀장과 김남희 대리는 김현진 사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재다능함을 칭찬했다. 이석훈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조성민 대리의 주량을 말하자 한바탕 웃음이 퍼진다.

“규모는 작지만 가장 젊은 팀이에요. 팀이 만들어진 것도 2년이 안 됐지만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2018년에는 팀이 자리를 잡고 팀원들도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가진 능력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로 나타난다. 시너지는 단순한 수학적 · 물리적 결합 그 이상을 의미한다. 1+1은 2가 아니라 100이 될 수도 혹은 1,0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시너지의 강력한 힘이다. 구성원 간 협력 의지와 방법, 리더십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속도 내기를 기대해본다. <sup>10</sup>

**조성민 대리**  
가슴 떨리는 새로움.

**김현진 사원**  
도전하는 젊음.

**박남도 사원**  
항상 함께하는 여자친구.

**이태섭 사원**  
간하지 않은 틀 안에서 팀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는 하얀 도화지.



양산 로디안 볼링회

# 넥센과 함께 훈훈한 스트라이크!

볼링은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어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다. 넥센타이어에 볼링으로 이어진 끈끈한 동호회가 있다는 소식에 양산으로 달려갔다. 알고 보니 실력까지 겸비한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었다.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 오늘을 기다렸다, 결산 대회

지난해 11월 15일, 양산의 한 볼링장에서 로디안 볼링회의 2017 결산 대회가 열렸다. 1991년 결성된 로디안 볼링회는 넥센타이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활성화된 동호회로 이미 유명하다. 오랜 역사만큼 실력도 쟁쟁해서 양산시 대회 제패는 물론이고 전국 직장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다. 이번 경기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결산 대회 겸 총회로 회원들의 높은 참석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대 근무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회원들도 있기에 이번 대회는 모두가 기다려온 이벤트이기도 했다. 전 인원 37명 중 경기에 참여할 23명의 회원들이 일찍 도착해 개인 장비를 살피거나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들 'NEXEN'과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어 동질감과 동시에 동호회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동호회장인 기술연구본부 선행개발팀 박태화 연구원의 인사말에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경기에 앞서 조를 나누기로 했다. 실력에 따라 고르게 시드(조장)를 구성하고 추첨을 통해 8개 조가 꾸려졌다. 간단한 경기 방식 설명이 끝난 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파이팅을 외쳤다. 2017 연말 결산 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분주하게 레인을 옮겨가며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사뭇 프로 선수 못지않은 열정이 느껴졌다.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도, 아쉽게 핀을 다 쓰러트리지 못할 때도 회원들은 서로 손바닥을 부딪치고 격려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볼링장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경기를 지켜보기도 하고 가족과 어울려 있기도 했다. 아빠의 경기를 구경하러 온 자녀들로, 아빠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이를 받아주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니 평소에도 돈독한 볼링 동호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동호회 가입 한 달 차인 연구개발본부 OE개발 3팀 신미진 연구원은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회에 참가하려니 긴장돼서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동호회 분위기가 좋아서 활동하는 게 재밌어요”라며 웃었다.


회원들이 생각하는 볼링의 매력은 무엇일까? “실내 스포츠잖아요.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개인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단체로 즐기면서 볼링 덕분에 친구가 생긴다는 점도 좋고요.” 회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 2018년에도 다 함께

사내 동호회 담당자로 참석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노사협력팀 허기혁 대리가 볼링회 자량을 늘어났다. “넥센타이어 볼링 동호회원들은 직장인 볼링 선수 중 정상급이에요. 박태화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양산시 대회는 물론이고 MBC 주최 전국 직장인 대회에서 우승한 전적도 있어요.” 허 대리는 경기를 지켜보며 보다 많은 넥센인들이 동호회 활동에 참가하기를 당부했다. “30명 이상,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사내 동호회로 정식 등록됩니다. 회사에서 반기마다 지원금을 제공해드리니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점수에 따라 조별 1, 2, 3, 4위와 개인 1, 2, 3위가 가려졌다. 배성우, 김위태 조가 1위, 개인 1위는 이상신 사원이 차지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회원들은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시상식과 뒤풀이를 진행했다. 순위에 오른 조에는 소정의 상품권이, 참석한 모든 회원에게는 결산 대회를 기념해 동호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이 지급됐다. “넥센타이어라는 지붕 아래 볼링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는 것도 반가울 뿐 아니라 업무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때도 많아요. 오늘 대회에 참석해주신 회원들께 감사합니다. 2018년에도 즐거운 동호회 생활 합시다.” 박 회장의 말이다. 총회까지 겸한 뒤풀이에 회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여 대식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친목도모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습 모임을 갖고 월례 대회를 치르며 실력 향상에 매진하는 볼링 동호회. 바람직한 동호인의 모습을 확인한 듯하다. 새해에도 유익하고 돈독한 모임으로 계속 함께하길 기원한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 칭찬합시다

동료, 친구에게 듣는 칭찬은 삶의 풍파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2017년도에 넥센인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었나요? 2018년 새해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아껴두었던 칭찬과 격려를 건네보세요. <헬로우 넥센>이 그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정리 김수진

잊지 못할 배려와 센스를 겸비한 남자

### 중국 NCTC 연구소 (중)RE개발팀 장옥충 대리에게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동료가 있어 2018년도 첫 <헬로우 넥센>에 사연을 보냅니다. 중국 NCTC 연구소 (중)RE개발팀의 장옥충 대리가 바로 그 동료입니다. 작년에 저는 중국으로 자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NCTC의 협조로 함께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 느낀 장옥충 대리의 꼼꼼함과 세심함은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퇴근 후 호텔 숙소로 돌아오는 길마다 카풀을 해주며 중국 출장길에 매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귀국하는 날에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직접 공항까지 배웅을 해주던, 마음이 참 따뜻한 친구였어요.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면 이번에는 제가 받았던 고마움을 베풀고 싶습니다.

● 연구소 IOP팀 탁세원 주임연구원 보냄



팀의 활력소

### 인재개발팀 이도연 사원, 인사팀 황미리 사원에게

HR 담당의 귀여운 막내 라인인 이도연, 황미리 사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텐데 팀의 활력소로서 잘 생활하는 것이 대견해요. 팀에서 굵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술선수범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신입사원의 패기를 가지고 맡은 바 일을 잘 해나가는 모습이 선배들에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룹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도연, 황미리 대박 멋진!

● 인사팀 김재영 과장 보냄



이도연 사원



황미리 사원



##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혁신을 향한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THINK TOMORROW







심장을 튼튼하게, 혈관을 탄탄하게

## 겨울철 심혈관 질환 주의보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다.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우리 몸의 체온은 떨어지고, 근육과 혈관도 수축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이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이자,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2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장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과 겨울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수진

전 세계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무엇일까? 암? 교통사고? 아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이다. 심혈관계 질환은 혈관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다. 혈관은 인체 내에 무려 12만km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혈관이 어딘가에서 막히면 인체에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한다.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는 강추위가 한창인 1월과 12월에 특히 증가한다. 이는 온도가 1℃ 내려갈 때마다 혈압은 올라가고, 혈액은 더 진해지면서 혈액 속 지질(脂質) 함량이 높아져 혈관 수축이 촉진되는 데 따른 현상. 특히 4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타 연령대보다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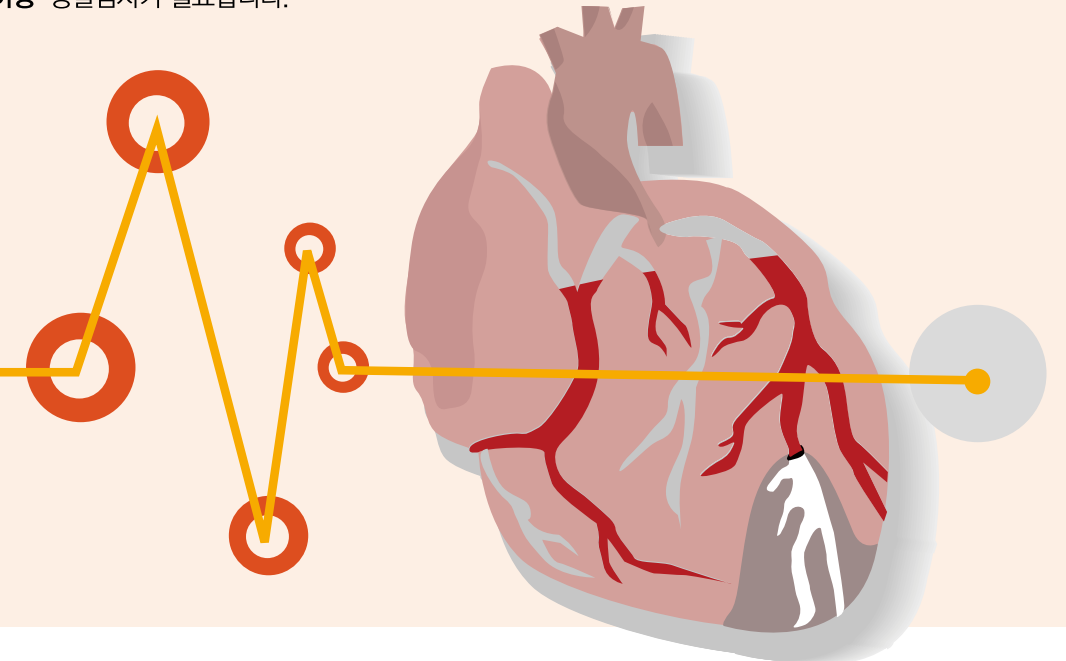
심혈관 질환 발병률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서구화된 생활습관을 꼽을 수 있다. 패스트푸드, 육류 위주의 식생활, 그리고 지방과 당 함량이 높은 고열량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선행 질환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높아진 것. 20~30대 젊은 층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자가 진단표를 통해 나의 심장 건강을 체크해보자.

### ○ 심장 건강 자가 진단표

\*출처: 대한심장학회, 2017

	1점	2점	3점
혈압은 얼마입니까?	120 / 80 미만	120~130 / 80~90 이상	140 / 90 이상
평소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주 3회 이상 (1일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차거나 땀이 나는 정도	주 1~3회 (1일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차거나 땀이 나는 정도	하지 않는다
가족 중 고혈압이나 심장병 환자가 있습니까?	없다	있다	2명 이상
흡연을 하십니까?	3년 이상 금연	최근 끊었다	흡연 중
1주일에 음주 횟수는 얼마입니까?	주 1회 이하	주 2회 정도	주 3회 이상
음주량은 얼마입니까?	1~2잔 이내	5잔 이내	5잔 이상
음식의 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싱겁게	보통	짜게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거의 먹지 않는다	주 2~3회	주 3회 이상
체중은 얼마입니까?	정상	살짝 비만	고도비만

- ☑ **14점 이하** 당신의 심장은 거뜨합니다.
- ☑ **15점 이상** 식습관 개선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 ☑ **20점 이상**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심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으로 혈관성 대사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꼽는다. 고혈압은 혈관벽을 무너뜨리고, 고지혈증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당뇨는 혈관을 녹슬게 하여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서서히 만들어간다. 문제는 혈관이 망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 '약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은 없다. 단지 혈압을 강제로 떨어뜨려서 기준치 혈압을 유지하게 하는 것뿐이다. 이외에도 ▲갑작스런 흉통 및 어깨 통증, 혈떡임, 호흡곤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지속 ▲통증 부위가 몸 다른 곳으로 이동 등의 전조 현상을 느낀다면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 ○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관리법

### 적절한 체중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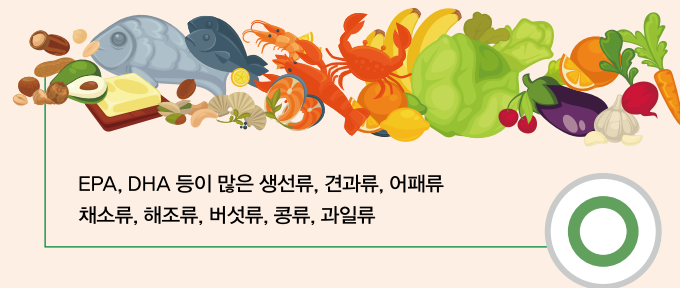
심혈관 질환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만 관리다.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이며, 고도비만도 최근 10년 새 78%나 증가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에서 심장 질환 사망 가능성이 2.4배 증가하며, 당뇨병 환자가 복부 비만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2.3배, 심혈관 질환은 5.5배 높아진다. 체중의 5~10% 정도를 감량하면 비만으로 인한 만성 질환과 합병증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 너무 짜게, 달게 먹지 않기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고혈압 발생률이 높아져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다. 김치나 젓갈 등은 염장 음식이라 염분 섭취가 높아지니 특히 주의하자. 열량이 높은 기름진 음식이나 소화흡수가 빨라 공복감을 유발하는 당 섭취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 특히 패스트푸드를 주 2회 이상 섭취하면 관상동맥 심장



소, 돼지, 닭고기, 오리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자, 스낵, 빵, 라면 등



EPA, DHA 등이 많은 생선류, 견과류, 어패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콩류, 과일류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56%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패스트푸드 섭취량 및 횟수를 조절해야 한다. 반면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간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콩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또 심장에 좋은 엽산도 들어 있어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대신해 먹으면 좋다. 연어 역시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장마비 위험을 줄여주며, 심장부정맥 위험도 감소시킨다.

###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혈중 HDL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주어 심장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걷기 운동이나 달리기, 등산, 자전거 타기, 줄넘기, 맨손체조, 수영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추운 겨울철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 심장이나 혈관에 급격히 부하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추위에 노출된 실외 운동을 해야 한다면 정기적으로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여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는 한편, 몸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 금연과 금주

습관적인 음주와 과음은 심장근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심장 박동력을 저하해 문제가 된다. 또한 심장 박동과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 그러므로 과음은 피하고, 만약 술을 마셨다면 이를 정도는 금주하여 심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흡연 역시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인자로, 흡연 시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혈전이 생긴다. 이로 인해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니 금연하는 것이 좋다. ④



## ○ 체질별 심혈관 질환 예방법

**소음인** 추운 겨울에 가장 힘든 체질은 소음인이다. 몸의 혈액이 부족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는 상태다. 여기에 외부 온도가 낮으면 더욱 혈액순환이 안 된다. 다른 체질보다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생강차를 마시면 냉증을 없애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태음인** 태음인은 기름지고 고열량 음식, 육류, 단 음식 등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이든 많이 먹는다. 많이 먹다 보니 혈액순환에 영향을 준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 등의 성인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피를 맑게 하는 대나무잎차를 마시면 좋다.

**소양인** 소양인은 겨울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편이다. 원래 열이 많아서 추운 겨울에도 찬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물도 시원하게 마시며,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편이다. 소양인은 자신이 시원한 것을 먹고 싶으면 시원하게 먹는 것도 좋다. 겨울이라고 따뜻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 상체로 열이 올라간다면 열을 내려주는 결명자차를 마시면 혈액순환에도 좋다.

**태양인** 태양인은 화가 많은 체질로 추운 겨울을 어느 정도 잘 견뎌낸다.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입맛에 따라 선선하게 먹으면 된다. 술잎차를 마시면 열도 내리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 ‘술(Alcohol)’에 대한 진실과 오해

연말연시를 맞이해 줄줄이 술 약속이라면 주목하자. 술은 즐겁게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음주 상식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마실 때 마시더라도 알고 마시자. 상황에 따라 알아보는 우리가 몰랐던 음주 팩트 체크를 통해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보자.

글 김혜진

내가 알고 있던 상식, 진짜일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 많은 정보들.  
어디서 들었는지도 가물가물하지만  
왠지 그럴 듯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야기의  
진위를 알아보는 <헬로우 넥센>의 진실 혹은 거짓.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요. 저는 술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되는 거라던데요?  
오히려 음주 체질이래요!



술을 입에 대기만 해도 얼굴이 금세 붉어지는 사람은 더러 건강하다느니 간 기능이 좋은가 보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얘기. 보통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된 다음 다시 초산으로 분해되어 없어진다.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되거나 부족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독성이 강하고 암 유발 물질로도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는 분해되지 않을 경우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다. 이때 독성 물질에 의해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쁜 것이다. 결국 안면 홍조 현상 등의 숙취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온몸에 퍼졌다는 나쁜 신호. 따라서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음주, 특히 과음은 피하는 게 좋다. 물론 붉어지는 사람도 술을 자주 마시다 보면 주량이 늘고 얼굴도 덜 붉어진다. 그것은 뇌의 일부분이 알코올에 적응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도 아세트알데히드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감기 걸려서 술은 못 마셔요.

😊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한 잔 쪽 마셔봐요!  
그리고 약 먹고 한숨 푹 자면 다 나아요!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풀어 마시고, 감기약을 먹은 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낫는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이야기다. 감기약의 항히스타민제는 콧물과 재채기를 멎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뇌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마비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 술 역시 뇌의 중추신경을 마취시키기 때문에, 만약 술과 약을 함께 먹으면 뇌에 상승 작용을 일으켜 생명 중추까지 마취시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음주 전후에 약을 복용하면 간은 알코올과 약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간은 알코올을 우선적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약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러 성분이 훨씬 독해진다. 또 항생 물질이 들어 있는 약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항주제(抗酒劑)를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켜 두통이나 혈압 상승 등의 이상을 야기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음주 후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엔 최소 4시간 지난 뒤라야 한다.

☹ 요즘 매일 술 약속이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 사우나 가서 땀 한 번 짹 빼고 나면 괜찮아지던데요?



술을 매일 마시면 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알코올 산화 부산물이 분해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체내에 남는다. 알코올 산화 부산물은 숙취를 유발하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술을 마신 뒤 2~3일가량은 간이 쉴 수 있도록 금주해야 한다. 술을 빨리 깨기 위해 음주 후 사우나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런 혈관 확장으로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고, 과도한 수분 배출로 탈수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 헉! 이거 40도예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저는 오히려 도수 높은 술을 마시면 숙취가 없더라고요!



술을 마신 뒤 흔히 겪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숙취는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한 것이다. 숙취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술의 도수보다 알코올 흡수량과 관련이 깊다. 폭탄주의 알코올 농도는 대체로 15% 내외인데, 체내에서 알코올이 가장 잘 흡수되는 농도가 15~20%다. 농도가 높을수록 체내에서 흡수가 잘될 것 같지만, 실제로 40도 안팎인 독한 양주를 마시면 인체는 이에 대항하는 자정 작용의 일환으로 위벽을 보호하는 위 점막이 수축되면서 오히려 알코올 흡수가 줄어든다.

☹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으시는 게 좋아요!

😊 모르는 소리! 약간의 알코올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약간의 음주는 리저바톨(Reservatol)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알코올은 소량만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소량의 음주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효과는 있을지라도 다른 질환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음주는 여성의 유방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인다. 특히 하루 5잔 이상씩 장기간 과음하면 심장의 근육이 약해지거나 심장의 부피가 20~30%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미국국립알코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 Alcoholism, NIAAA)에서는 간이나 췌장, 기타 다른 장기 손상 및 안전사고를 고려해 성인 남자는 하루에 2잔, 임신부를 제외한 여자는 1잔씩 마실 것을 권고한다. ⑩



# 힘든 눈꽃산행 이젠 부담 없이 즐기자!



겨울 산에 핀 눈꽃은 상고대와 더불어  
날씨만큼이나 시리도록 아름답다.  
하지만 절경을 보기 위해선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 허리까지 폭폭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일반 산행보다  
2~3배는 힘들게 정상 부근에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젠 그러지 말자.  
산행은 가볍게! 절경은 마음껏!  
멋진 설경을 자랑하는 산 중 편안하게  
눈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글/사진 박민우 사진 협조 원주군, <여행스케치> DB



WITH NEXEN | 넥센 트래블

Hello NEXEN





향적봉 정상에서  
상고대가 반기네

## 덕유산 향적봉 눈꽃 트레킹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덕유산은 주봉인 향적봉이 1,614m에 이르는 소백산맥의 주맥이다. 겨울에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주목에 피어난 상고대와 눈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겨울의 덕유산을 최고의 백미로 꼽는다. 향적봉에 오르는 코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겨울철 20km 이상 산행을 해야 하는 부담에 풀코스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도 덕유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주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관광곤돌라를 이용하여 설천봉(1,520m) 정상에 오른 다음 20여 분 약 600m만 걸으면 향적봉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곤돌라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설경이 시작된다. 웅장한 산세를 지닌 덕유산에 온통 눈꽃이 피어 있기 때문이다. 향적봉으로 오

르는 길은 나무 데크와 안전 밧줄이 설치돼 있지만 바닥이 얼어 미끄럽기 때문에 아이젠은 필수다. 향적봉 정상에서 충분히 설경을 감상하고 내려와도 왕복 1시간이면 충분한 산행이지만, 설천봉으로 내려오는 길에 아이젠이 없으면 낙상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덕유산에서 만나는 상고대와 설경은 그 독특한 멋에 하산 후에도 뇌리에서 가시지 않는다.

### Info

####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돌라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문의 063-320-7381,

[www.mdysresort.com](http://www.mdysresort.com)

운영시간 09:00~16:00

(하행은 16:30까지, 시즌에 따라 변동)

#### 요금

왕복(성인 15,000원 / 어린이 11,000원),

편도(성인 11,000원 / 어린이 7,700원)





백패커들의 천국

## 발왕산 눈꽃 트레킹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과 대관령면 경계에 위치한 발왕산은 해발 1,458m의 태백산맥 중앙 산맥에 속한다. 산 아래에는 용평스키장이 조성돼 있어 겨울철이면 스키어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발왕산 역시 용평스키장에서 관광곤돌라를 이용하면 상부의 드래곤피크 승강장까지 약 18분이면 올라갈 수 있다. 곤돌라에서 보는 평창의 설경은 눈으로만 보기 아까울 정도. 멀리 북쪽으로는 선자령 자락을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가 보이고, 맑은 날에는 동해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승강장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펼쳐지는 설국 풍경에 그저 감탄사만 나온다. 승강장에서부터 볼 수 있는 주목을 따라 20여 분 걸으면 발왕산 정상 표지판이 나온다. 정상을 조금 지나면 탁 트인 분지가 나오는데, 온통 넓은 눈밭이라 야영하기 좋아 최근 들어 백패커들에게 인기 장소로 꼽힌다. 발왕산 눈꽃 트레킹은 여기까지만 하길 권장한다. 더 넘어가면 등산로가 잘 보이지 않아 자칫 길을 잃을 수 있다. ㉞

Info

**용평리조트 관광곤돌라**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문의 033-335-5757

www.yongpyong.co.kr

운영시간 09:00~17:00

(성수기 18시까지)

요금 성인 15,000원, 어린이 11,000원



호남의 소금강

## 대둔산 눈꽃 트레킹

**대둔산케이블카**

주소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공원길 55

문의 063-263-6621~3

www.daedunsancablecar.com

운영시간 09:00~17:00(하절기 18시,  
연중무휴, 배차 20분 간격)

요금 왕복(성인 9,500원/ 어린이  
6,500원), 편도(성인 6,500원/  
어린이 4,500원)

Info

대둔산은 전북 완주군과 충남 금산군, 충남 논산시 경계에 위치한 도립공원이다. 정상은 해발 878m의 마천대로, 웅장한 산세와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절경을 이룬다. 금강통문을 가로질러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잇는 50m 길이의 '금강구름다리'는 51도 급경사를 자랑하는 127계단의 '삼선계단'과 함께 대둔산의 명물로 알려져 있다. 산세가 좋아 사계절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 대둔산은 특히 겨울 눈꽃 트레킹으로 유명하다. 금강구름다리와 삼선계단이 상고대와 어우러져 연출하는 풍경은 다른 산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기 때문. 더구나 케이블카를 이용해 정상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겨울 산행의 위험과 고단함까지 가볍게 해결해준다.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동안 설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이다. 상부 승강장에 도착하면 마천대까지 약 1시간 30분만 걸으면 된다. 이 구간이 대둔산 설경의 절정이니 힘들이지 않고 바로 절경을 감상하며 가벼운 트레킹을 할 수 있다. 금강구름다리와 삼선계단은 등반 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마천대에서 하산할 때는 쪼개진 바위, 낙조대, 웅문굴, 칠성대전망대를 거쳐 다시 상부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천천히 내려오면 총 거리 약 6km로, 넉넉히 4시간 정도 소요된다. 1990년 11월에 운영을 시작한 대둔산 케이블카는 최근에 시설을 최신식으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운행으로 등산객을 맞이하고 있다.





색다르게 즐기는 레시피

# 김밥, 어디까지 먹어봤니?

평소 김밥을 한 끼 대충 때우는 음식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속 재료,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 전혀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보자.  
한 끼 식사로 모자람 없는 김밥을 소개한다.

자료협조 &lt;한입에 김밥&gt; 수작절다

보다 특별한 누드롤을 만들고 싶은 날에는 오이참치 김초밥에 도전하자. 오이는 아주 얇게 썰어야 밥에 잘 밀착되어 예쁜 누드롤이 만들어진다.

## 재료

밥 2공기(400g), 김밥용 김 2장, 참치통조림 1캔(100g), 오이 1개  
배합초 식초 1큰술, 설탕 2/3큰술, 소금 1/3큰술  
참치 양념 마요네즈 3큰술, 후춧가루 약간

## 만드는 방법

- ① 냄비에 배합초 재료를 넣고 설탕, 소금이 녹을 정도로 살짝 끓인 후 밥이 뜨거울 때 넣어 주걱으로 가르듯이 섞는다.
- ② 참치는 체에 밭쳐 최대한 기름을 빼고 참치 양념에 버무린다.
- ③ 오이는 감자칼을 이용해 얇게 슬라이스한다.

- ④ 김발에 랩을 깔고 김 1장을 올린 후 김이 보이지 않게 ①의 밥을 고르게 편 다음 김이 안으로 오게 뒤집는다.
- ⑤ ④ 위에 양념에 버무린 참치를 올리고 돌돌 만든다.
- ⑥ 랩을 벗기고 밥 위에 오이를 올린 후 랩으로 말아 모양을 잡고, 김발로 다시 한번 만든다.

## 오이참치 김초밥



## 모차렐라 치즈튀김 김밥



흑미밥과 모차렐라치즈를 합친 튀김김밥은 바삭한 빵가루와 치즈의 쫄득함이 색다르다. 진한 치즈의 맛을 내고 싶다면 체다치즈를 더해보자.

**재료** 흑미밥 1공기(200g), 김밥용 김 2장, 모차렐라치즈 100g, 달걀 1개, 빵가루 1컵, 밀가루 1/3컵, 카놀라유 2컵 (튀김용), 칠리소스 2큰술(찍어 먹는 용도)

**밥 밀간** 참기름 1작은술, 통깨 1/2작은술, 소금 1/4작은술

## 만드는 방법

- ① 흑미밥에 참기름, 통깨, 소금을 넣어 밀간한다.
- ② 김은 세로 방향으로 4등분해 8장을 만들고, 밀간한 흑미밥을 고르게 편 후 모차렐라치즈를 올려 만든다.
- ③ 달걀을 풀어 달걀물을 만들고, ②에 밀가루-달걀물-빵가루 순으로 튀김옷을 입힌다.
- ④ 카놀라유를 170℃로 달구어 ③의 김밥을 노릇하게 튀겨 칠리소스를 곁들인다.



## 돈가스 양배추 샌드위치 김밥

일식 돈가스집의 돈가스와 양배추, 참깨소스 세트를 김밥으로 옮겨왔다. 참깨소스와 어우러진 양배추채가 돈가스의 느끼함을 잡아준다.

**재료** 밥 1과/2공기(300g), 김밥용 김 2장, 돈가스용 돼지고기(등심 또는 안심) 200g, 양배추채·카놀라유(튀김용) 2컵씩, 단무지 1/2컵, 파프리카 1/2개, 오이 1/4개, 달걀 1개, 빵가루 1컵, 밀가루 1/3컵

**밥 밀간** 참기름 1과/2작은술, 통깨 2/3작은술, 소금 1/3작은술

**돈가스 밀간** 다진 마늘·맛술 1작은술씩,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참깨소스** 참깨 1/3컵, 마요네즈·견과류 1큰술씩, 설탕·맛술·간장·물 1/2큰술씩, 레몬즙 1작은술, 소금 1/6작은술

### 만드는 방법

- 1 밥은 밀간하고, 돈가스용 돼지고기도 칼집을 넣어 밀간한다.
- 2 단무지, 파프리카, 오이는 채 썰고, 참깨소스는 커터기에 갈아 준비한다.
- 3 달걀은 풀고, 밀간한 돈가스용 돼지고기는 밀가루-달걀물-빵가루 순으로 튀김옷을 입힌다.
- 4 3의 돈가스를 170℃로 달군 카놀라유에 넣어 노릇하게 튀겨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5 도마에 랍과 김 1장을 순서대로 올리고 10×10cm 크기로 밥을 깎 뒤, 양배추채, 오이채, 파프리카채, 단무지채, 돈가스, 참깨소스, 밥을 순서대로 올린다.
- 6 김을 네모 모양으로 감싸고 랍으로 한 번 더 감싼 뒤 칼에 식초물을 묻혀 반으로 자른다.



## 된장 오이고추 김밥

아삭한 식감의 오이고추 안에 된장 양념을 넣어 속 재료로 이용해 보자. 김밥을 잘랐을 때 단면도 예쁘고 밥에 양념이 묻지 않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

**재료** 밥 2공기(400g), 김밥용 김 2장, 오이고추 4개, 통깨 1컵

**밥 밀간** 참기름 2작은술, 통깨 1작은술, 소금 1/2작은술

**된장 양념장** 으갠 두부·된장 1과 1/2큰술씩, 올리고당·통깨 2/3큰술씩, 고춧가루·다진 파 1과 1/2작은술씩, 참기름 1작은술, 다진 마늘 2/3작은술

### 만드는 방법

- 1 밥은 참기름, 통깨, 소금을 넣고 섞어 밀간한다.
- 2 오이고추는 한쪽 면만 칼로 갈라 고추씨를 뺀다.
- 3 볼에 된장 양념장 재료를 넣고 섞은 뒤 찰주머니 안에 넣는다. 찰주머니를 이용해 씨를 발라낸 오이고추 속에 된장 양념장을 채운다.
- 4 김발에 랍과 김 1장을 깔고 밥을 고르게 편 후 김이 안으로 오도록 뒤집는다.
- 5 4에 된장 양념 넣은 오이고추를 넣어 돌돌 만든다.
- 6 랍을 벗긴 후 김밥 전체에 통깨를 묻히고, 다시 랍으로 감싼다. 칼에 식초물을 묻혀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한입에 김밥〉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57가지 김밥과 18가지 결들임 재료를 소개한다. 아이 생일상, 브런치 모임 테이블, 다이닝 테이블을 김밥으로 꾸미는 다양한 차림상과 김밥별 어울리는 국물까지 소개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넥센인의 / 넥센인에 의한 / 넥센인을 위한

## 바로 이 집

부산 지역  
송현영 대리 추천

### 쇼쿠도다방 부산대점



#### 1.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

깔끔, 맛, 합리적인 가격

#### 2. 이 집 추천 메뉴

화로구이정식 외 모든 메뉴

#### 3. 이 집 특징

1인 밥상, 1인 화로

일본식 가정식, 시간대별 이자카야로 분리

벚꽃 인테리어

#### 추천인 한마디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 참 좋은 식당입니다. 애들이 밥 먹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음식이 식은 채로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샤브샤브나 화로구이 주문 시 1인 화로를 제공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따뜻하게 음식을 먹일 수 있어서 좋아요!



- ▶ 지역 부산
- ▶ 영업시간 11:30 ~ 20:30 (가정식 식사), 20:30 ~ 04:00 (이자카야)
- ▶ 위치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번길 12  
(간판에 대형 고양이가 있어 찾기 쉬워요!)
- ▶ 가격 화로구이 정식 11,000원



강동 지역  
박성열 사원 추천

### 삼일 민물장어



#### 1.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

비싼 민물장어를 서울 시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음

#### 2. 이 집 추천 메뉴

오로지 민물장어구이(특대 사이즈)

#### 3. 이 집 특징

상차림비 외 장어는 횡값으로 구매 가능  
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

#### 추천인 한마디

업무 후 심신이 지쳤을 때 장어구이를 먹으면 피로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 동료들이나 대리점주들과 한잔할 때 방문하면, 좋은 안주로 몸보신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 ▶ 지역 서울
- ▶ 영업시간 12:00 ~ 23:30
- ▶ 위치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85(구의동 57-62), 아차산역 사거리  
(지하철 아차산역 2번 출구 걸어서 3분)
- ▶ 가격 민물장어 특대 54,000원



놓치지 않을 거예요~!

#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올해 어떤 문화생활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이 페이지를 정독하자. 신년에 즐기길 좋은 축제, 공연, 전시회, 책 정보를 소개한다.

정리 김지혜

## 축제



### 평창송어축제

국내 최대의 송어 양식지인 평창의 맑은 물에서 자란 송어는 부드럽고 쫄깃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연인, 가족과 함께 텐트 속에서 즐기는 텐트낚시, 얼음을 깨고 송어를 잡는 얼음낚시를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낚은 송어는 즉석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으니 맛과 재미는 두 배다.

기간 2월 25일까지

장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62

문의 033-335-4000, festival700.or.kr



### 정선고드름축제

공공 언 조양강이 썰매장으로, 얼음낚시터로, 아이스하키장으로 변신했다. 어른 키를 훌쩍 넘는 대형 고드름과 눈사람,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린 터널과 초가집 등 곳곳에 배치한 조형물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축제장 인근에서 열리는 정선오일장에는 따뜻한 먹거리가 푸짐하니 꼭 한번 둘러보자.

기간 2월 25일까지

장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59

문의 033-563-3013, icefestival.kr



### 취어매드니스

일일 형사가 되어 취어매드니스 미용실 위층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용의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날의 관객과 함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이 연극은 관객들의 투표에 따라 매회 범인이 달라져, 매번 다른 결말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기간 월~금 14시, 17시, 20시 / 토·일 13시, 16시, 19시 (오픈런)

장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45 대학빌딩 B1

문의 02-747-2232, facebook.com/ShearMadnesskr

##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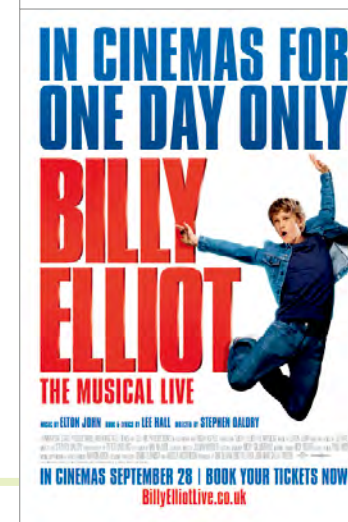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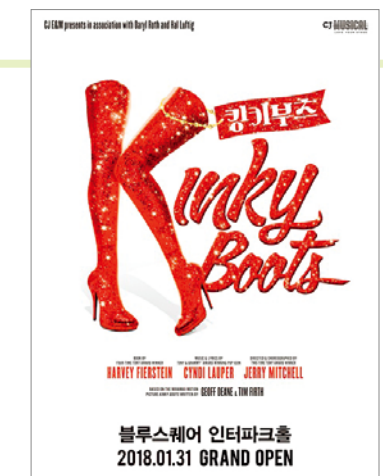
### 킹키부츠

빨간색 롱부츠가 가져다준 마법 같은 성공을 그린 뮤지컬로, 1980년대 파산 위기에 빠진 아버지의 구두 공장을 물려받은 찰리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성화, 고창석, 김호영 등 믿고 보는 초호화 배우,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음악, 따뜻한 교훈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기간 1월 31일~4월 1일

장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블루스퀘어

문의 1544-1555, facebook.com/cjmusical



### 빌리엘리어트

복싱 수업 중 우연히 접한 발레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레리노의 꿈을 이뤄가는 소년 빌리의 이야기. 엘튼 존의 아름다운 음악, 환상적인 춤이 탄탄한 드라마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기간 월~금 14시, 17시, 20시 / 토·일 13시, 16시, 19시 (오픈런)

장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아트센터 7층

문의 02-577-1987, iseensee.com





#### 앤서니 브라운 展 - 행복한 미술관

독특한 상상력으로 사랑받는 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이 '행복'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판된 〈Hide and Seek(숨바꼭질)〉 원화 작품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국내 작가와의 합작 영상, 움직이는 대형 조형물 등도 함께 전시된다.

기간 3월 4일까지

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전당  
문의 02-3143-4360, anthonybrowne2017.modoo.at



#### 옵션 B

세릴 샌드버그, 애덤 그랜트  
/ 와이즈베리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역경과 상실에 직면한 사람들이 옵션 B의 삶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 책은 극복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옵션 B의 삶을 최대한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울 것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1위

#회복탄력성

#삶의장애물을넘는법

#인생의터닝포인트



#### 유병재 농담집 블랙코미디

#### 블랙코미디 유병재 농담집

유병재 / 비채

유병재의 〈블랙코미디〉에서는 누구나 겪었을 법한, 차마 말로 내뱉지 못했던 일상 속의 부조리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반전 있는 문장과 재미있는 에피소드 속에서 나오는 웃음을 막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냥 웃기는 것은 아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현실 속에서 뼈 있는 농담을 선사한다. 에세이, 우화, 아이디어 노트, 미공개 글 138편에 유병재식 자아성찰이 가득하다.

#웃픈농담 #유병재천재설

#공감백배 #고구마속사이다

## 전시

#### Paper, Present : 너를 위한 선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섬세한 감각과 아날로그적 소재인 종이 감성적인 매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바람, 별빛, 햇살 등과 같은 자연 요소와 기억, 설렘 같은 감정을 종이에 입혀 관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기간 5월 27일까지

장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길 21 대림미술관

문의 02-720-0667, daelimuseum.org



#### 라이프 사진전

역사적인 순간과 인물을 담아냈던 유명 잡지 〈라이프(LIFE)〉. 기억해야 할 얼굴, 기억해야 할 시대, 기억해야 할 변화, 아름다운 시절 20세기 등 4개 섹션으로 나뉜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 공개하지 않은 140여 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기간 1월 1일~4월 8일

장소 부산시 유엔평화로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문의 070-7542-0531, seelife.co.kr

##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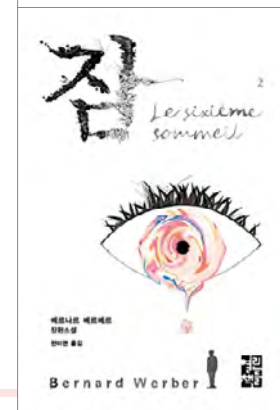
#### 이홉번째 파도

최은미 / 문학동네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찬성파와 반대파의 팽팽한 대립, 은밀하게 퍼져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 의문의 죽음에 얽힌 과거의 비밀을 추적해나가는 주인공까지, 끝이 보일 듯한 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진다. 다양한 이야기의 갈래를 흡입력 있게 끌고 나가는 이 책은 독자를 꿈쩍없이 빨려들게 한다.

#미스터리소설 #2017젊은작가상 #실제사건모티브

#휘몰아치는흡입력



#### 잠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사람은 일생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간을 자고 그 시간의 12분의 1은 꿈을 꾸다. 하지만 잠이 깨는 순간 꿈은 거의 잊히고 만다. 만약 꿈을 제어할 수 있거나 꿈을 통해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꿈의 비밀을 찾아 나서는 모자의 모험담과 더불어 뇌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는 6단계 수면의 비밀, '잠 잘 자는 법', '잠을 이용해 공부하는 법'에 대한 설명도 녹아 있어 흥미를 더한다.

#4년만에신작 #장편소설 #스펙터클 #꿈속의모험 #잠읽느라잠못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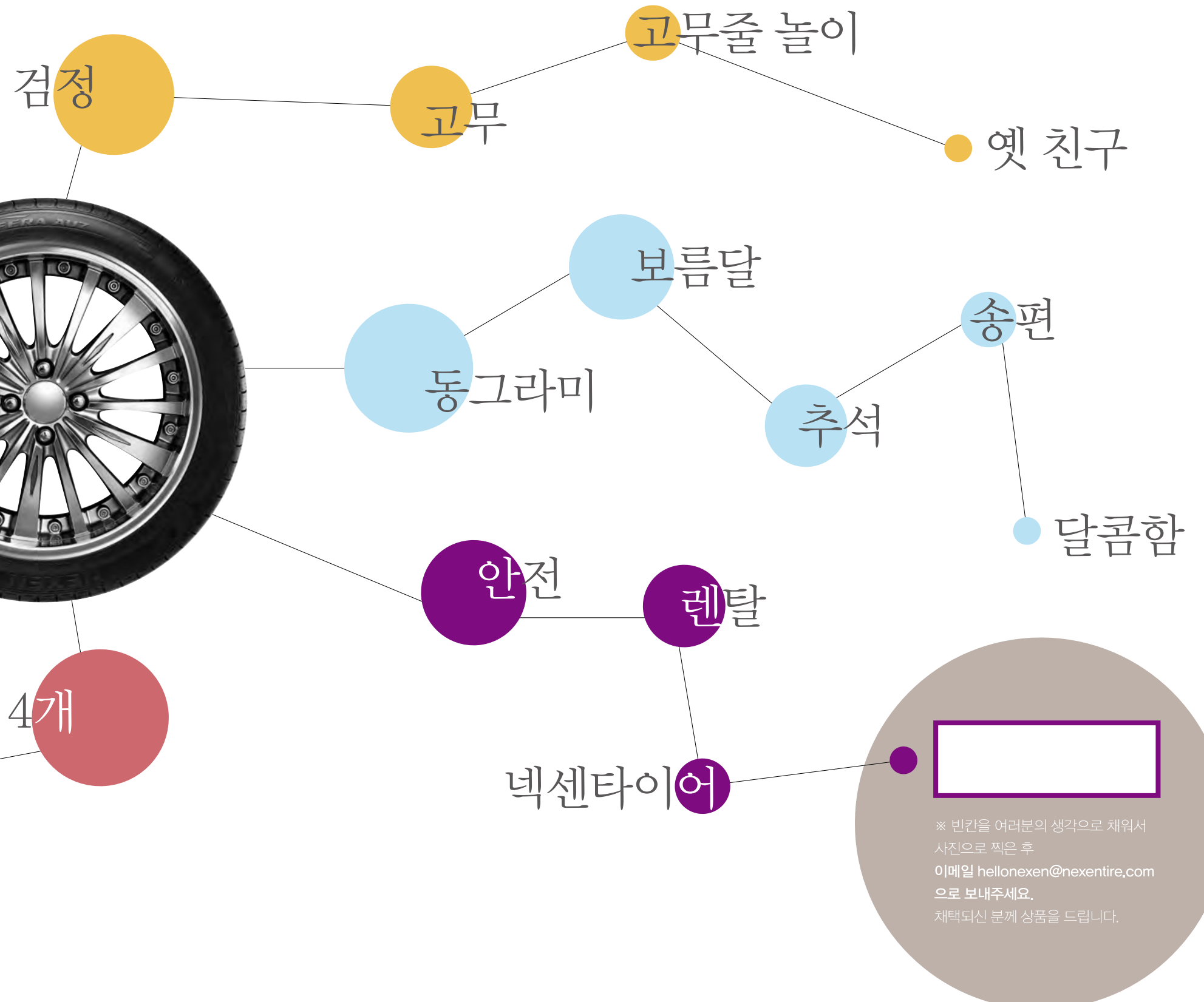


# 나만의 한 단어

## 넥센 싱크빅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으로 이어지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바나나는 길어 다음 떠올린 단어가 왜 하필 기차였을까? 누군가는 가래떡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밧줄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를 두고도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이미지를 떠올린다. 정답도 오답도 없다. 넥센인들만의 기발한 의식의 흐름을 공유해보자.

글 김혜진



※ 빈칸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서  
사진으로 찍은 후  
이메일 [hellonexen@nexentire.com](mailto:hellonexen@nexentire.com)  
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2018년 신년호

# 〈헬로우 넥센〉참여 후기

신년호 제작에 참여해주신 넥센타이어 사우들의 따스한 후기, 함께 읽어요.



위 아 더 넥센  
마케팅팀  
**이석훈 팀장**

어느 잡지에서 읽은 구절처럼, 한 해의 마침표에서 딱 한 발짝 떨어진 시점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덕분에 한 해를 돌아보고, 팀원들을 돌아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에 대한 제 마음이 전해지지 않은 건 아닌지 반성도 해보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서툰 팀장과 서툰 팀원들의 이야기를 예쁘게 담아주신 〈헬로우 넥센〉에 감사합니다.



위 아 더 넥센  
마케팅팀  
**김남희 대리**

〈헬로우 넥센〉에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활동 내역을 기고한 적은 있으나 직접 사보에 나오게 돼 새로웠습니다. 팀 인터뷰를 통해 팀원들 서로가 고마운 점을 얘기한 덕에 더욱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꾸려진 지 2년 된 저희 마케팅에 기회를 주신 〈헬로우 넥센〉 담당자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헬로우 넥센〉 독자분들 모두 2018년 새해에 원하시는 목표 이루었으면 합니다.



나눔 스토리  
인재개발팀  
**이도연 사원**

일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좋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배추를 뽑고 담고 나르고 차곡차곡 쌓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확한 배추가 김장 캠페인에 활용되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강원도 노구소 마을 일손 돕기가 넥센타이어의 전통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패밀리 데이  
(창녕) 생산관리팀  
**박상준 사원**

아주 오랜만에 아내와 데이트를 하니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예쁜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좋아하는 VR 체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어요. 육아에서 벗어나 아내와 보낸 시간 덕분에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 추억 만들기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헬로우 넥센〉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02-3480-0369 hellonexen@nexentire.com

### 독자 선물 당첨자

홍경석 대전 서구 문정로

조봉진 전남 여주시 대치길

송재하 대구 수성구 만촌로

서덕인 전남 화순군 남면 상사길

신세명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길

이영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THE LEGEND IS GROWING***

approved for **PORSCHE MACAN**



**NEXEN TIRE**